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 20~40 대를 중심으로 -

2014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이칭허롤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미선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 20~40대를 중심으로 -

Study on Facial Skin Care Attitude of Korean and Mongolian
women

Focused on Those aged 20s to 40s

2014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이칭허롤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미선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 20~40대를 중심으로 -

Study on Facial Skin Care Attitude of Korean and Mongolian
women

Focused on Those aged 20s to 40s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이칭허롤러



이칭허롤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 20~40대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이 칭 허 룰 러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소재한 20~40대 여성(36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몸 상태, 피부유형과 피부상태, 피부 관리, 화장품 사용과 식습관, 음주, 흡연,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 등 생활습관에 대한 64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하였으며 안면 피부 관리 태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여성이 20~29세가 69명(37.7%), 40~49세가 60명(32.8%), 30~39세가 54명(29.5%), 몽골여성이 20~29세와 30~39세가 각각 69명(37.7%), 40~45세가 45명(24.6%)로 대상했다.

둘째, 대상자중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고졸과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반면에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대졸과 기혼, 자녀가 2명 경우가 제일 많았다. 평균수입이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20~25만원이 가장 많았다.

셋째, 키가 160~170cm 큰 한국 여성이 많았으며 몽골여성이 150~160cm가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 3명과 몽골여성 8명이 임신중이었고, 한국여성 171명과 몽골여성 165명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변비가 없는 것이 제일 많았던 반면에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변비가 있는 것이 제일 많았다. 한국여성 54명과 몽골 여성 9명이 노화방지를 위해 미용시

술이나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넷째,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주근깨와 기미, 피부 건조, 여드름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주근깨와 기미, 주름, 피부건조가 제일 관심 있는 피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여성 보다 몽골여성의 안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잘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섯째, 몽골여성과 한국여성 20~30대 경우에는 대부분은 피부 관리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었지만 몽골여성 40대 경우에는 대부분은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는 반면에 한국여성 40대 경우에는 대부분은 피부 지식을 피부 관리실에서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한국여성 20대 경우에는 미온수로 몽골 여성 20대 경우에는 찬물로 세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안할 때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비누 사용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클렌징 폼 사용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 번째,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마사지 크림과 마스크 팩 등을 한달에 1회 정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들은 각질제거를 하지 않는 반면에 한국여성들은 각질제거를 1주일에 1~2회 정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덟 번째,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연령대 모두에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 화장품 판매원의 상담을 받는 반면에 한국여성 20~30대 경우에는 광고와 인터넷, TV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40대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높았다.

아홉 번째, 기초 화장품 중에서는 몽골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영양크림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여성 20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30~40대에서는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 모두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몽골여성 20대 경우에는 보습화장품, 30대 경우에는 보습과 주름개선 화장품, 40대 경우에는 주름개선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한국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보습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다.

열 번째, 몽골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로션을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한국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에센스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영양크림을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크림을 사용하지 않다고 추종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여성 20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30~40대 경우에는 매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몽골여성 20~40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 20~40대 경우에는 항상 바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 30대 경우에는 외출 시에만 바른다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 30대 경우에는 항상 바른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열한 번째, 몽골여성 30~40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다는 반면에 한국여성 30~40대 경우에는 하루에 2~3잔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육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여성 20~30대의 경우에는 육류의 비율이 높았으며 40대 경우에는 채소와 육류의 비율이 등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몽골여성 20~30대 경우에는 인스턴트를 가끔 먹으며, 40대는 거의 안 먹는 반면에 한국여성 20대 경우에는 인스턴트를 자주 먹고, 30~40대는 가끔 먹는 연령대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

열두 번째,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모두 연령대에서 흡연 안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20대에서는 한 달에 1회 음주를 한다면 30~40대는 음주를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세 번째,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수면 시간이 6~8시간 가장 많았지만 20대 경우에는 기상 및 취침이 불규칙적이라며 30~40대의 경우에는 기상 및 취침이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네 번째, 몽골여성 30대 경우에는 운동을 가끔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운동을 1주에 1~2번 정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열다섯 번째, 몽골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 30~40대 경우에는 한국여성 30~40대를 비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여섯 번째, 몽골여성 20대에 비해 한국여성 20대의 평균근로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일곱 번째, 몽골여성들이 야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는 반면에 한국 여성들이 야외활동을 주말마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 20~30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향이 많고, 40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을 보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을 보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현재 몽골여성들이 한국여성들에 비해 피부 관리 지식과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피부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부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관리방법이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시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 도구의 설문지를 여러 분석을 실시 할 수 있게 구성하여, 몽골과 한국여성의 피부 관리 태도와 안면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비교하므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주요어】 안면피부, 피부상태, 피부관리, 화장품, 생활습관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3
II. 이론적 배경	4
2.1 피부의 구조	4
2.1.1 피부의 정의	4
2.1.2 피부와 피부부속 기관의 발생	4
2.1.3 표피	5
2.1.4 진피	7
2.1.5 피하지방층	7
2.1.6 피부 부속기관	7
2.2 피부의 기능	9
2.2.1 피부 보호기능	9
2.2.2 교환 기능	10
2.2.3 체온 유지 기능	10
2.2.4 감각 기능	10
2.2.5 저장 기능	10
2.2.6 비타민 D 합성 기능	11
2.2.7 사람의 외모 결정 기능	11
2.3 피부의 요형, 관리법	13
2.3.1 중성 피부	13
2.3.2 건성 피부	13
2.3.3 지성 피부	15
2.3.4 복합성 피부	16
2.4 피부노화	16
2.4.1 피부 노화의 종류	16

2.4.2 피부 노화의 원인	18
2.4.3 노화피부의 특징	18
2.4.3.1 주름살	18
2.4.3.2 피부의 두께가 얇아짐	18
2.4.3.3 색소성 반점	18
2.4.3.4 얼굴 볼륨 감소	19
2.4.3.5 피부 건조	19
2.4.3.6 모세 혈관 확장증	20
2.4.3.7 노인 자반증	20
2.5 연령 별 피부 상태	20
2.5.1 20대 사람의 피부 상태	20
2.5.2 30대 사람의 피부 상태	20
2.5.3 40대 사람의 피부 상태	21
2.6 기초 화장품	21
2.6.1 세안용화장품	21
2.6.2 화장수	22
2.6.3 유액	22
2.6.4 크림	22
2.6.5 젤	22
2.6.6 팩 마스크	22

III. 연구방법 23

3.1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23
3.2 연구 도구	23
3.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3

IV. 연구결과 및 고찰 26

4.1 몽골과 한국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26
4.2 몽골과 한국여성의 일반적인 몸 상태에 대한 분석	28
4.3 몽골과 한국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에 대한 분석	30

4.4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분석	32
4.4.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지식습득의 연관성	32
4.4.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세안횟수의 연관성	34
4.4.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세안하는 물 온도의 연관성	36
4.4.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클렌징 사용의 연관성	38
4.4.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클렌징 종류의 연관성 ...	40
4.4.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의 연관성 ...	42
4.4.7 몽골과 한국여성의 홈케어 피부 관리의 교차분석	44
4.4.8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마스크 팩 사용 반복의 연관성 ...	45
4.4.9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각질제거 사용 반복의 연관성	47
4.5 화장품 사용에 대한 분석	49
4.5.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색조화장품 사용의 연관성	49
4.5.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구매 시 주요점의 연관성	51
4.5.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화장품 선택상담의 연관성	53
4.5.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기초 화장품의 교차분석	55
4.5.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기능화장품의 교차분석 ·	56
4.5.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로션 사용 반복의 연관성	57
4.5.7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에센스 사용 반복의 연관성	59
4.5.8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영양크림 사용 반복의 연관성	61
4.5.9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아이크림 사용 반복의 연관성	63
4.5.10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차단 사용 반복의 연관성	65
4.5.1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 차단제 반복의 연관성	67
4.6 안면 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에 대한 분석 ..	69
4.6.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물 섭취의 연관성	69
4.6.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커피 섭취의 연관성	71
4.6.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좋아하는 맛의 연관성	73
4.6.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즐겨먹는 식품의 교차분석	75
4.6.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연관성	76
4.6.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건강식품 섭취의 연관성	78
4.7 음주와 흡연 여부에 대한 분석	80
4.7.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음주 여부의 연관성	80
4.7.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흡연 여부의 연관성	84
4.8 피부상태에 미치는 생활습관 수면, 운동, 환경에 대한 분석	88

4.8.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시간의 연관성	88
4.8.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수면 방향의 연관성	90
4.8.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	92
4.8.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운동여부의 연관성	94
4.8.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	96
4.8.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	98
4.8.7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일 하는 환경의 연관성	100
4.8.8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언제 일하는가의 연관성	102
4.8.9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 근로시간의 연관성	104
4.8.10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햇빛 노출의 연관성	106
4.8.1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야외활동의 연관성	108
4.8.12 몽골과 한국여성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의 교차분석	110
4.8.1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으로 보호 방법의 연관성	112
4.8.1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환경오염 여부의 연관성	113
4.8.1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공기오염 여부의 연관성	115
 V. 결론 및 제언	 117
 참고문헌	 124
부 록	126
ABSTRACT	136

표 목 차

<표 1 > 건성 피부의 특징	14
<표 2 > 내인선 노화와 광노화 표피 변화에 따른 차이	17
<표 3 > 설문지 구성	25
<표 4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7
<표 5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몸 상태	29
<표 6 > 연구 대상자의 안면 피부 상태	31
<표 7 >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	33
<표 8 > 세안횟수	35
<표 9 > 세안하는 물 온도	37
<표 10> 클렌징 사용의 반복	39
<표 11> 클렌징 종류	41
<표 12> 피부 관리실 방문 횟수	43
<표 13> 홈 케어	44
<표 14> 마사지 크림, 마스크 팩 등의 사용하는 반복	46
<표 15> 각질제거를 사용하는 반복	48
<표 16> 색조화장품 사용하는 반복	50
<표 17> 구매 시 주요점	52
<표 18> 화장품 선택상담	54
<표 19> 기초 화장품 사용	55
<표 20> 기능성 화장품 사용	56
<표 21> 로션 사용하는 반복	58
<표 22> 에센스 사용하는 반복	60
<표 23> 영양크림 사용하는 반복	61
<표 24> 아이크림 사용하는 반복	64
<표 25>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반복	66
<표 26>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바르는 반복	68
<표 27> 하루의 물 섭취량	70
<표 28> 하루의 커피 섭취량	72
<표 29> 좋아하는 맛	74

<표 30> 즐겨 먹는 식품	75
<표 31> 인스턴트식품 섭취	77
<표 32> 건강식품 섭취	79
<표 33> 음주 여부	81
<표 34> 음주량	83
<표 35> 흡연량	85
<표 36> 흡연을 하고 있는 시간	87
<표 37> 평균 수면 시간	89
<표 38> 수면 방향	91
<표 39> 기상과 취침	93
<표 40> 운동 여부	95
<표 41> 스트레스 정도	97
<표 42> 스트레스 관리	99
<표 43> 일 하는 환경	101
<표 44> 언제 일 하는가	103
<표 45> 평균 근로시간	105
<표 46> 햇빛 노출	107
<표 47> 야외 활동	109
<표 48>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	111
<표 49> 자외선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112
<표 50> 환경오염 여부	114
<표 51> 공기오염 여부	116

그 립 목 차

<그림 1>	피부와 피부부속 기관의 발생	5
<그림 2>	표피의 구성	7
<그림 3>	진피와 피하지방의 구성	9
<그림 4>	피부와 기관들의 상호작용	12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외모는 물론, 내면의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물학적으로 기능적 구조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외부 요인에 대한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노화현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5세가 넘으면 생리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며 20대 후반에는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수분 보호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서 투명감을 상실하게 되어 칙칙함을 느끼고, 재생주기가 늦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피부 결이 거칠어지고 각질세포를 연결하는 지질의 산화로 피부방어막이 깨지면서 피부의 예민화가 나타난다(이나경, 2011, p.98). 피부노화는 요인에 따라 크게 생리적 노화(Intrinsic aging or chronologic aging)와 외적노화(Extrinsic aging or photo aging)로 나눌 수 있다(김성중 외, 2012, p.127).

홍진이(2007)는 피부의 노화에 미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다. “여성들의 안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내적인 요인으로는 내분비, 대사활동, 순환계통, 임신 등이 있을 수 있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계절의 변화, 공기 오염, 자외선, 건조한 환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피부관리 습관 요인으로는 클렌징, 피부타입에 맞지 않은 화장품 선택에 대한 화장품 성분의 트러블, 무리한 각질제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 식생활 습관, 운동부족, 다이어트,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몽골의 사회 경제분야에 선진국이 된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나라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0년부터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몽골인의 생활 습관, 먹을거리, 건강 등에 한국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몽골인의 외모 관리와 피부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도시 울란바타르만해도 한국 미용실, 한국 피부 관리실이 많이 생기고 몽골 여성의

대부분은 한국 기초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쓰고 있다. 몽골 여성들은 계절, 날씨, 생활 습관에 맞는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 20대~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안면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비교해 봄으로서 몽골 여성의 피부 관리 개선과 올바른 피부 관리 태도를 파악하여 몽골여성의 올바른 피부 관리에 대한 지침서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둘째, 한국과 몽골 여성의 피부 관리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셋째,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에 미치는 화장품 사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 넷째,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에 미치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 다섯째,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에 미치는 생활습관 음주, 흡연을 파악하고자 한다.
- 여섯째,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에 미치는 생활습관 수면 스트레스 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피부 구조

2.1.1 피부의 정의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가장 바깥 면을 덮는 다양한 기능을 성취하는 피부와 부속구조(털, 땀, 손발톱)로 이루어진 다양한 변화를 가진 장기를 피부라고 한다. 성인의 경우는 무게가 3.5~4.5kg 정도, 표면적인 약은 2.0 m² 정도, 두께는 1mm~3mm이다.

피부는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피하층(subcutaneous layer)으로 분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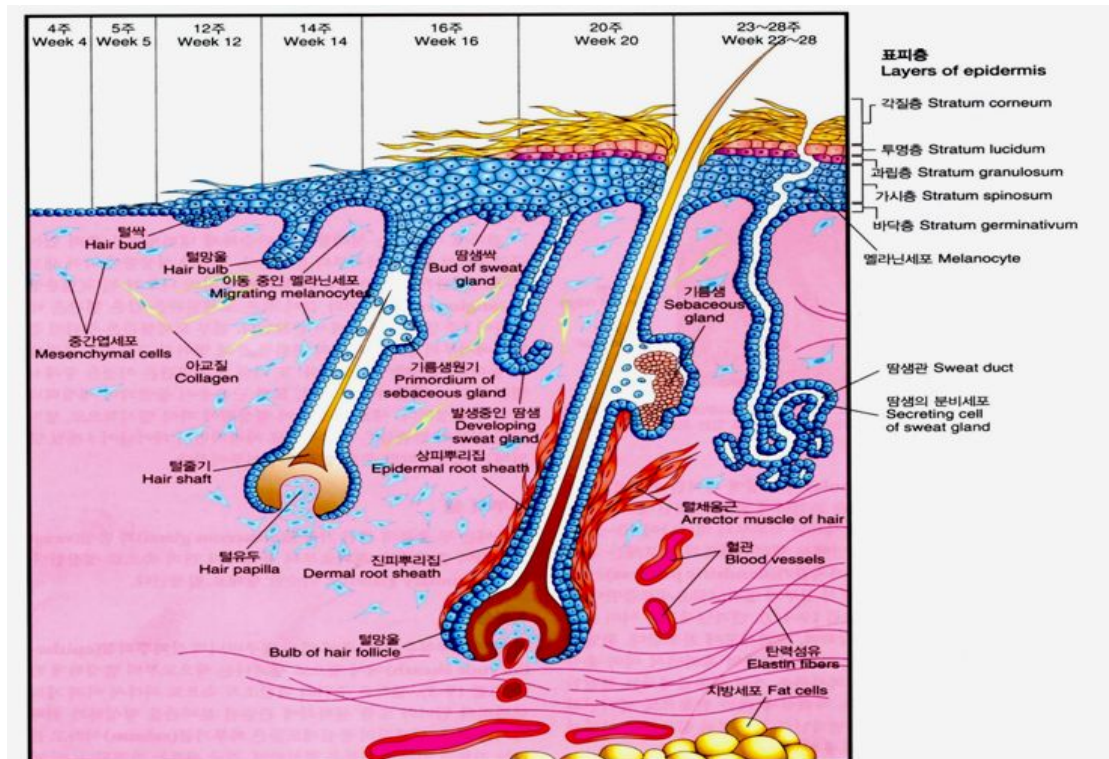
2.1.2 피부와 피부부속 기관의 발생

피부계통은 배아나미 4~5주부터 중간엽에서 진피, 표면외배엽에서 표피의 발생이 시작하고 표피층 세포 대치는 21주 까지, 진피층 세포 대치는 28주 까지 진행된다.

7~8주 까지 표피의 성장 단계로 두께가 증가되고 생식해서 태아표피(periderm)와 바닥층(basal layer)에서 분할이 된 세포로 대치하고 각질화되는 바닥중자층(stratum germinativum, 바닥층)으로 형성된다. 이때는 기름샘으로 나온 흰 윤기난 물질 태아기름막을 형성하고 이것은 태아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1주까지는 바닥층에서 세포들은 생성되고 밖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층(intermedia germinativum)을 만든다. 10~17주 까지 바닥층 속에서 진피속으로 밀려간 표피능선(epidermal ridge)이 완성된다. 표피능선은 손발바닥과 각각 손발가락 사이에 주름을 형성된다. 멜라닌세포는 태아 7~8주에 피부에 나타난다.

따라서 진피능선(dermal ridge)이 형성된다. 11주에 아교, 탄력결합조직섬유를 생산한다. 5주에는 모세혈관이 발생되고 12주되면 태아진피의 혈관들이

거의 완성된다. 기름샘(sebaceous gland), 땀샘(sweat gland), 젖샘(mammary gland)은 표피로부터 발생하고 진피 속으로 자란다. 12주에 털의 발생은 시작하고 14~20주에 왕성하다. 10주에 손발가락 끝에서 시작하고 32주에 손톱, 36주에 발톱이 완성된다(길영기 외 역, 2008, pp.440-442).



<그림 1> 피부와 피부부속 기관의 발생

출처: 길영기, 김대중, 김원식, 김재영, 김중중, 김홍태 외 역. 인체발생학 제8판 p.442

2.1.3 표피

표피는 신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얇은 피부에는 0.04~1mm, 두꺼운 피부에는 1~1.5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얇은 피부에는 4층, 두꺼운 피부에는 5층으로 구성되고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 멜라닌세포(melanocyte), 랑게르한스세포(langerhans cell), 머켈세포(merkel cell)가 존재하는 층이다.

1) 기저층 (stratum basale, st. germinativum-바닥층)

기저막에 밀집하게 붙어 있는 사각형 각질형성세포로 이루어진 표피의 가장 아래층이다. 기저층에 있는 각질형성세포만 분열하는 능력을 가지고 상피 표명에서 떨어지거나 손실된 세포를 대체한다. 멜라닌세포는 각질형성세포의 사이사이 흩어져 있고 다양한 멜라닌색소를 여러 층에 존재하는 각질세포들에 전해 준다. 각질형성세포와 멜라닌세포의 비율은 부위에 따라서 4:1, 20:1로 나타난다. 머털세포는 기저층의 가장 깊은 세포 사이에 존재한다.

2) 유극층(stratum spinosum)

다각형에서 위로 갈수록 납작해지는 당긴원섬유(tonofibril)이라는 단백질 미세섬유를 가지고 있는 각질형성세포 5~6층으로 이루어지고 각질형성세포 분화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당긴원섬유로 서로 인해 매우 강하게 연결된다. 멜라닌세포와 랑게르한스세포가 존재한다.

3) 과립층(stratum granulos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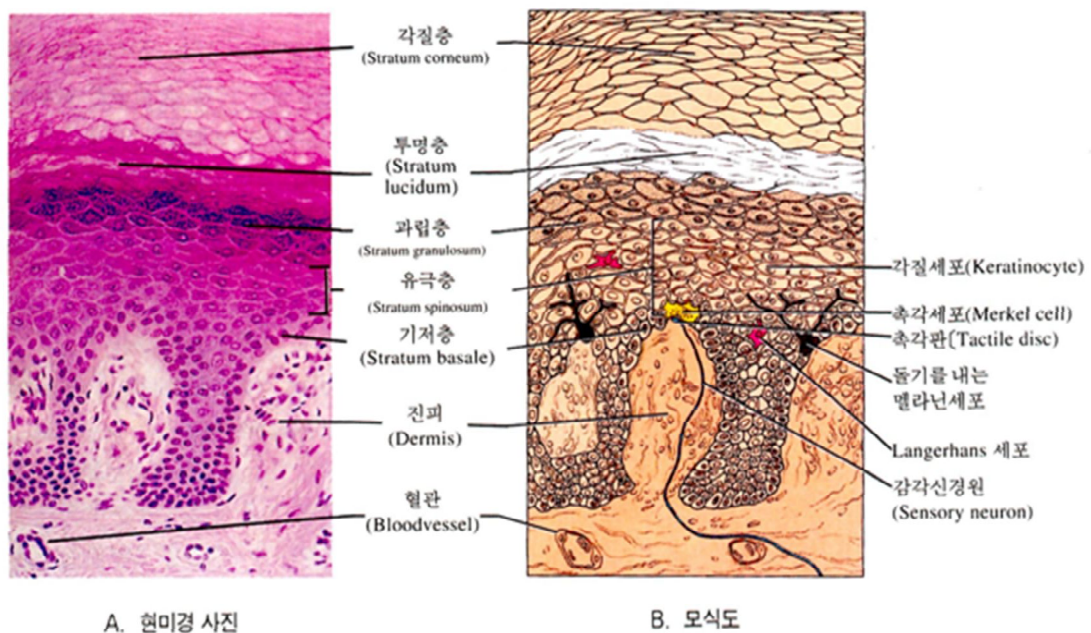
케라토하이알린(keratohyaline)과 각질단백질(keratin), 층판소체(odland body)가 새로 생기는 두꺼운 세포막을 가진 매우 납작한 3~5층 각질형성세포로 이루어진다. 케라토하이알린과 각질단백질의 합성 속도는 피부에 미치는 외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케라토하이알린과 각질단백질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고 굳은살(callus)이 생긴다.

4) 투명층(stratum lucidum, clear layer)

두꺼운 피부에는 과립층을 덮고 있는 엘라이딘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기 때문에 기본 조직표본에서 염색되지 않고 투명하게 보이는 2~3층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5) 각질층(stratum corneum, horney layer)

각질층은 죽은 세포가 서로 맞물려 있는 15~30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세포들은 탈락이 되고 그때마다 기저세포들 분열해서 만든 새 세포들 외층으로 이동하면서 떨어져 나간 각질세포를 채우게 된다. 이 과정은 평균 28일이 되고 표피 재생기간이라고 한다(우원홍 외 역, 2010, pp. 40-44).



<그림 2> 표피의 구성

출처: 김명숙. (2003). 피부관리학. p.5

2.1.4 진피

진피는 유두층(stratum papillaray)와 망상층(stratum reticular)으로 구성되고 모낭, 피지선, 한선 등 피부 부속기관이 진피 속으로 들어 가 있는 신경, 혈관, 림프관, 교원섬유, 탄력섬유, 대식세포, 섬유아세포, 비만세포, 기질 등이 존재하는 0.5~4mm 정도 두꺼운 층을 말한다.

1) 유두층(stratum papillari)

진피의 10~20%를 차지하는 표피의 기저층이란 기저막으로 접한 물결 모양으로 이루어진 유두로 구성된다. 유두층에 있는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으로 통한 표피의 대사 진행되고 신경종말로 형성하는 감각소체로 촉각이나 통각 신경을 전달한다. 유두층에 있는 탄력섬유, 교원섬유 다발은 매우 섬세하게 위치한다.

2)망상층(stratum reticu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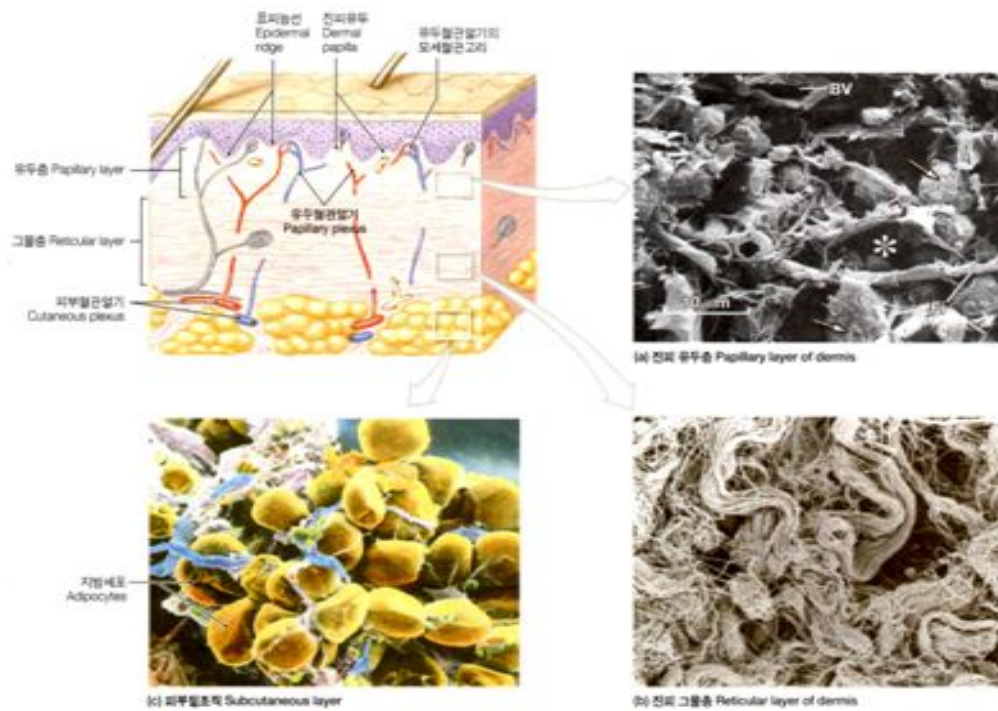
망상층에는 교원섬유들이 공간의 모든 방향으로 가로로 교차해서 진피의 골격을 만들고 피부의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탄력섬유는 서로 잘 짜이게 골격에 자기들의 복잡한 망을 연결시켜 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준다. 이런 망 사이에 세포들이 존재한다. 이 섬유들은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평행한 다발로 배열되어 있다.

2.1.5 피하지방층

지방세포의 가늘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조직 사이사이에 혈관, 림프관, 신경 등이 좀 더 굵게 위치한다. 지방층 두께는 신체의 부위, 성별에 따라서 달라진다(한영숙 외, 2011, pp.41-51).

2.1.6 피부 부속기관

피부 부속기관에는 모낭, 피지선, 한선, 손톱발톱이 들어간다. 손톱발톱은 표피의 혈통 기관으로서 손가락 발가락을 보호해준다. 한선은 부분 분비 땀샘(apocrine gland) 샘 분비 땀샘(eccrine gland)으로 나누어지며 체온 조절, 배설 작용, 보호 역할을 한다. 털은 보호기능, 장식기능, 지각기능을 가진다.



<그림 3> 진피와 피하지방의 구성

출처: 우원홍, 김명자, 김범희, 김연섭, 김정상, 김정아 외 역. 인체해부학. p.45

2.2 피부의 기능

2.2.1 피부의 보호 기능

피부는 물리적 공격, 다양한 오염, 태양 광선, 미생물과 다른 병원균과 같은 유기체에 대한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응하는 물리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장벽이다 라고 한다(한영숙 외, 2011,).

인간은 살아 가는 동안 외부 환경의 모든 것을 피부로 접하고, 자극을 받아 이런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역할을 한다.

한영숙 외(2011)는 어떤 외부 영향에서 보호하는지에 따라서 기계적인 보호,

화학적인 보호, 체온 보호, 태양광선 보호, 미생물 침투 보호, 과도 습윤화 보호, 건조화 보호라고 분리되었다(pp.95-103).

2.2.2 교환 기능

피부를 통해 신체로 주입된 물질들이 흡수되는 것은 피부 표면의 피부막, 각질층부터 흡수가 시작되면서 진피의 혈관으로 들어온 과정이다. 각질층으로 흡수하는 것은 세포 사이 공간과, 세포들로 아니면 피부 부속기로 통과하는 것이다.

이나경(2011)은 표피의 표면으로 3000달톤 미만, 표피의 내의 살아 있는 세포로 500-800달톤 미만, 진피의 혈관으로 75달톤 미만 분자무게 있는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200).

2.2.3 체온 유지의 기능

환경이 더울수록 땀 배출이 증가하고 증발하여 열을 낮게 해 주고, 추운 환경에는 피하지방층에 있는 지방조직이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열을 만들거나 외부로 잃는 열을 막아준다.

2.2.4 감각 기능

피부의 유두층 까지 존재하는 수용체들로 형상, 꺼칠꺼칠함, 기온, 통증, 부드러움 등 다양한 촉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체의 5개 감각 기관의 하나는 피부감각 기관이다.

2.2.5 저장 기능

피하지방층은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의 소화된 결과에 남은 초과 에너지와 영양분을 지방조직으로 저장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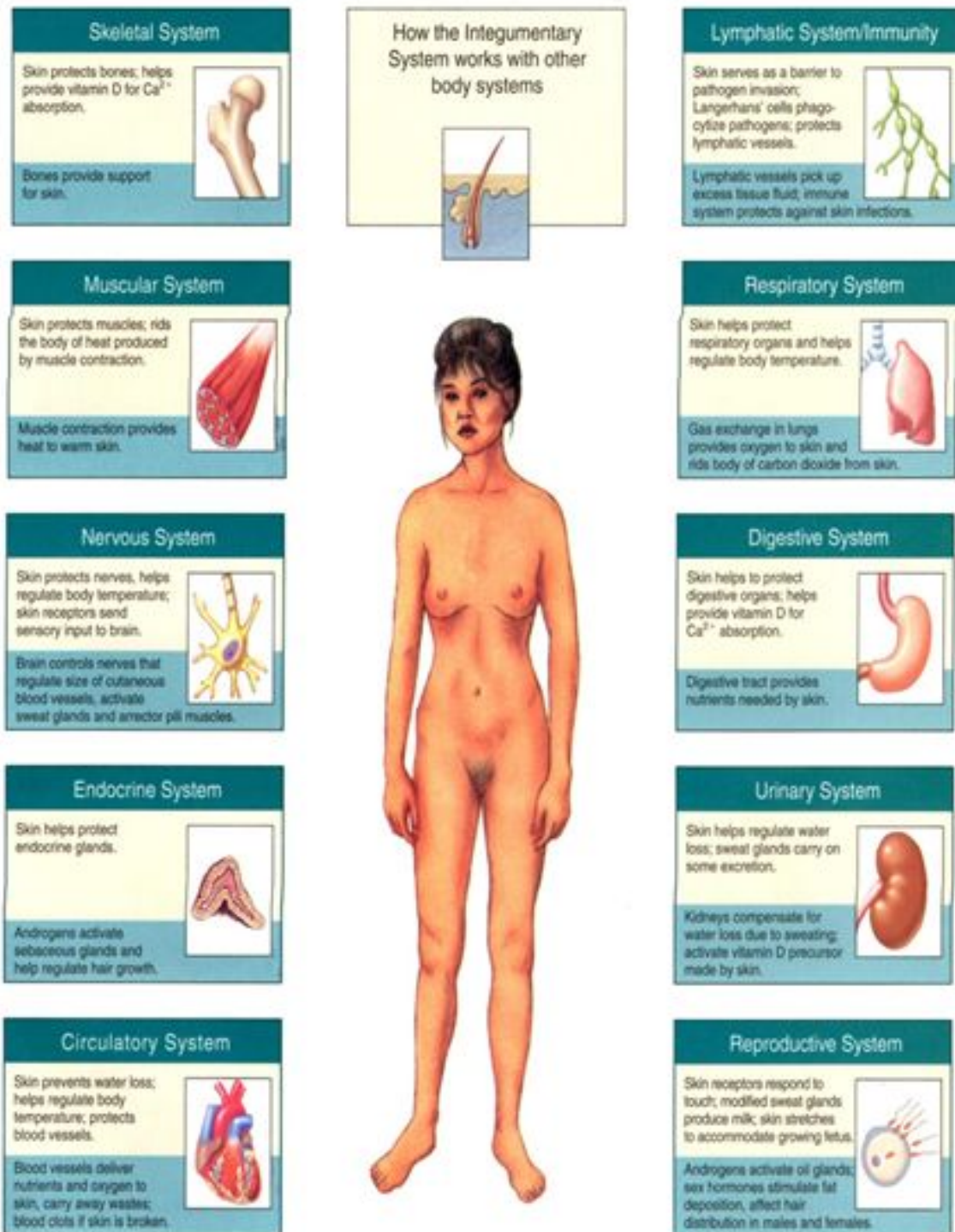
2.2.6 비타민 D 합성 기능

비타민 D는 자외선 B의 도움으로 표피의 과립층에 존재하는 중환소체에서 합성이 된다.

한영숙 외(2011)는 성인의 경우 이틀에 한번 10분정도 10cm^2 의 피부를 태양에 노출시키는 것으로도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을 만들 수 있다고 접근하였다(p109).

2.2.7 사람의 외모 결정 기능

피부 상태, 모양, 특성에 따라서 사람의 외모가 결정된다. 젊을 때 젊게, 나이가 들면 늙은 노인으로 보이는 것의 한 요인은 피부의 변화이다. 그래서 피부 미인에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림 4> 피부와 기관들의 상호작용

출처: Sylvia S. Mader (Ed.). (2001). Understanding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fourth edition. p.106

2.3 피부의 유형, 관리법

피부의 유분·수분량,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에 따라서 피부를 중성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로 분리된다.

피부유형은 연령, 기후, 계절, 외부환경, 일상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요수, 신체의 내부적인 건강 등에 따라서 항상 서로 바뀔 수 있다. 이 중에서 피부의 모든 기능 가정 정상적으로 하는 요형은 중성 피부이며 정상피부라고도 이야기한다.

어떤 피부 유형을 가지더라도 피부의 기능들을 제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피부 관리의 목적이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피부유형을 파악하여 피부유형 특성을 알아야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다.

2.3.1 중성피부(normal skin)

피지선 한선의 기능 가장 정상적이고 피부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10~20대 조에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를 배고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며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 상태이지만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조되어 노화가 시작된다.

중성피부는 피부표면이 윤기 있고 매끄럽고, 촉촉하고,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모공이 작고 눈에 띄지 않고, 혈색이 좋고, 색소침착과 여드름이 없고, 피부저항력이 있고 탄력성이 좋은, 화장을 잘 받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중성피부를 관리할 때 비누세안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피부위생을 위해 스크럽, 효수제품으로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딥클렌징을 하고 아침 저녁때 유분·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초 손질을 매일 매일 하고, 유분이 많지 않는 수분이 많은 영양 크림 등으로 일정하게 마사지하고, 보습팩이나 영양 팩을 일주일에 1번씩 사용해야 된다. 계절 연령에 맞는 비타민A, E 와 천연보습인자(NMF) 노화방지 화장품을 사용한다. 비타민A를 비롯하여 비타민류가 함유된 식품으로 규칙적인 식생활을 한다.

2.3.2 건성 피부(dry skin)

생리적인 노화연상, 외부환경, 올바르지 않은 피부 관리, 맞지 않은 화장품

등 다양한 요인으로 피부의 유분·수분 부족한 피부를 건성피부라고 하면서 원인에 따라 일반 건성피부, 표피수분부족 건성피부, 진피 수분부족 건성피부로 분리된다. <표 1>

<표 1> 건성피부의 특징

구분	일반건성피부	표피 수분 부족 건성피부	진피 수분 부족 건성피부
연령관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피부 두께	얇아 보임	얇지 않음	얇아 보임
당김	세안 후 손질을 하지 않은 경우 심함	계속적으로 당김	당김이 내부에서 부터 심하게 느낌
윤기	없음	없음, 있음	없음
모공 크기	작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주름	표정 잔주름이 많다.	표정 주름이 없고, 피부 조직에 잔주름이 있다.	굵은 주름살이 형성된다.
저하력	약함	약하지 않음	심하게 약함
여드름류	없음	있음	있음, 없음
크림 바를 때	빨리 스며든다	스며드리지 않다	스며든다
색소침착	—	발생이 쉽다	발생이 쉽다

24~25세에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한선과 피지선의 기능 저하되어 피부의 보습력이 떨어져서 피부의 수분 부족한 피부를 일반건성피부라고 한다.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로 만든 피부 피지막을 막아준다. 이런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증발을 억제시키지 못한다.

자연적인 노화가 아는 경우에는 유분이 많이 함유한 크림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피지선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도 억제 시키지 못하여, 안드로겐호르몬의 부족 등으로 수분 부족 건성피부가 된다.

피부 유분·수분 기능이 정상적이지만 자외선, 찬바람, 일광욕, 냉·난방 겨울

철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맞지 않는 피부 관리, 화장품 등 외적인 요인으로 피부수분 증발이 증가하면서 표피부족 건성피부를 만든다. 피지분비가 많은 지성피부에도 올바르게 관리된 피부 관리로 표피부족 건성 피부를 유발한다.

과도한 자외선, 환경오염, 장기간 동안 표피부족 건성피부 등 이유로 섬유아세포기능이 줄어들고 콜라겐 섬유조직이 손상되어 진피 수분부족 건성피부가 된다. 건성피부유형 중에서 정상으로 회복기 가장 어려운 피부 유형이다.

건성피부를 관리할 때 세안을 자주 하지 않거나 비누세안을 피하고 피지막을 제거하지 않은 로션, 오일 등 클렌징제품을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세안을 한 후에 기초 제품을 바른다. 알코올이 10% 이하 화장수를 사용한다. 눈 목 등에 보습효과 있는 크림을 바르고, 비타민A, 천연보습인자, 콜라겐, 히알루론산등 보습 물질이 함유된 영양 크림을 사용한다. 아침에는 유분·수분 종류의 보습 크림, 저녁에는 유분·수분 종류의 영양 크림을 바르고, 일주일에 유분·수분이 적절하게 함유된 마사지 크림이나 팩을 2~3회 사용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류가 충분한 식생활을 한다. 자외선, 일광욕, 사우나 등으로 수분증발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냉난방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2.3.3 지성피부(oily skin 지루피부)

피지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피지를 분비하는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한다. 안드로겐 호르몬, 갑상선호르몬 등 여러 호르몬의 영향, 기후, 공기 오염, 위장장애, 변비 등의 영향으로 피지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된다. 사춘기 20대 지성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가 점점 중성으로 바뀌었다가 건성으로 변화된다. 유성 지루피부, 건성 지루피부로 분리된다.

유성지루 피부는 티-존뿐만 아니라 안면피부의 전체적으로 모공이 크고 과도한 피지분비로 인해 피부 번질거림이 심하고, 피부가 거칠고 두껍게 보이고, 화장 잘 지워진다. 저항력이 건성피부부터 강한다. 색소침착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여드름이 쉽게 발생한다.

유전적인 이유, 기후, 계절 등 환경적인 이유, 스트레스, 잘못된 피부 관리 등 내적 외적인 유인으로 피지성의 기능이 증가하고, 한선과 피부 내 보습 기능이 저하하므로서 유분·수분의 불균형으로 피부표면이 당기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부 요형을 건성 지루 피부라고 한다. 유성지루성 피부란 다른 점은 피부표면이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고, 피부색이 창백하고, 더 예민하고 쉽

게 붉어지고, 저항력이 약해서 여드름 발생이 더욱 크고 잔주름이 쉽게 생긴다.

거품타입 클렌징을 사용하고, 스크럽, 효소필링 등을 사용하는 딥클렌징을 사용하고 각질을 제거한다. 유성지루성피부는 무지방 화장품을, 건성지루성피부는 보습화장품을 사용한다. 비타민A, 비타민B군이 함유된 식품을 주로 사용하고, 지방, 당분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2.3.4 복합성 피부

티-존은 지성이고 유-존은 건성피부를 말한다. 올바르게 않는 관리를 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예민한 복합성피부로 바뀔 수 있다.

세안 한 후 티-존을 제외한 부위에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다. 티-존에는 기름기가 많고 모공 크기가 커지고 여드름 발생이 심하다. 눈가에 잔주름이 쉽게 생긴다. 광대뼈 볼 부분에 색소침착이 쉽게 생긴다. 부위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김명숙, 2013, pp.50-61).

2.4 피부 노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생물학적으로 기능, 구조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외부 요인에 대한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노화현상의 과정을 거친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피부 기능이 떨어지고 표피층, 진피 층, 피하지방층의 구조에도 생기는 변화가 피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이다.

2.4.1 피부 노화의 종류

피부 노화를 크게 생리적인 노화(intrinsic aging or chronologic aging), 외적노화 (extrinsic aging or photoaging)두 가지로 분리된다(<표 2>).

<표 2 > 내인선 노화와 광노화 표피 변화에 따른 차이

구분	내인선 노화 피부	광노화 피부
표피의 두께	얇다	두껍다
표피 세포	균일한 세포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 극성이 보존 통상적으로 위축 멜라노솜이 균일하게 분산	부정형의 세포 세포가 무질서하게 배열 극성이 소실 중중 비대 다양한 멜라노솜이 결여 또는 비대
각질층	통상적 세포층 각질세포의 크기 균일	세포층이 보다 많아진 형태, 염색성, 각질 세포의 크기 다양
멜라노사이트	세포 감소 균일한 세포 멜라노솜 생산이 불안전	세포증가 다양한 세포 멜라노솜 생산 증가
탄성섬유조직	증가하지만 거의 정상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	매우 증가 변성된 부정형의 덩어리 형성
콜라겐	섬유축이 굵다	섬유축과 섬유 급격히 감소
망상진피	얇아짐	비후성, 탄성섬유 증상 있음
섬유세포	소, 불활성	증가, 활성 증대 증가
비만세포	감소	감소
염증성세포	염증성 세포 없음	혼합된 염증성 세포 침윤
모세혈관	중간정도로 감소 정상 혈관 모세혈관 확장증 없음	명백히 감소 이상 혈관 모세혈관 확장 증상 있음
암파관	중간정도로 감소	대부분 소실
랑겔한스세포	세포 수 약간 감소 정상세포	세포 수 명백히 감소 다양한 세포

출처: 김귀미(2009) 이향우, 김주연, 이연희(2003). 피부과학

내인선 노화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피부에서 보통 관찰되고 자연적으로 나이 들수록 점 점 노화가 진행되고 잔주름, 피부 건조함, 탄력감소 등 노화 증상이 발생하면 광노화의 경우에는 내인선 노화에 비하여 심하고 나이 상관없이 일찍부터 관찰되고 노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굵은 깊은 주름, 잔주름이 많이 발생하고 불규칙적 색소침착, 거칠기, 건조함이 나타나고, 탄력성이 감소하고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심한 경우에

피부가 처지게 된다. 원인에 따라 광노화, 열 피부 노화, 갱년기 피부 노화, 공기 오염 피부 노화, 흡연에 인한 피부 노화, 피부염증에 인한 피부 노화 등 분류한다.

2.4.2 피부 노화의 원인

피부노화에 미치는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인 영향, 자외선A, B, C 등 태양의 영향, 추위, 건조함, 바람, 오염 등 환경적인 자극, 올바르게 않은 피부 관리, 스트레스, 신경 피로 등 정신적인 영향, 생활 습관의 영향, 영양부족, 호르몬, 잘 못 사용하는 화장품 등 다양하다.

2.4.3 노화 피부의 특징

2.4.3.1 주름살

표정을 짓는 동안 얼굴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여 피부를 접하게 되어 눈썹사이, 코와 입술사이, 이마 등에서 생기는 표정 주름이 있고 피부 노화 과정에서 피부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주름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서 주름살을 펴는 경우에는 피부에 주름이 흔적이 없다. 교원섬유는 피부의 골격을 만들어 단단함을 유지하고 탄력섬유는 피부의 탄력을 제공하는데 피부 노화 과정, 자외선, 열 등 영향으로 섬유아세포의 교원섬유, 탄력섬유의 합성이 감소하거나, 교원섬유와 탄력섬유 양의 감소, 교원섬유와 탄력섬유의 분해, 손상 등으로 주름이 생긴다.

2.4.3.2 피부의 두께가 얇아짐

에코그래프(echography)를 통해서 피부의 두께를 살펴봤는데 70세 까지 피부의 두께가 지속적으로 얇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2.4.3.3 색소성 반점(pigmented spot)

우리 몸을 자외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표피에서 멜라닌세포가 멜라닌색소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다. 자외선을 받는 경우에는 멜라닌세포 수와

멜라닌색소를 만드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더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멜라닌세포의 수와 기능이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얼굴 피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자외선의 영향으로 자외선을 받지 않아도 멜라닌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계속으로 수와 멜라닌색소 합성이 증가하므로서 주근깨, 기미, 흑자, 불규칙한 색소침착, 검버섯 등 색소성 반점이 생긴다. 이 중에서는 기미와 주근깨를 나이 상관없이 흑자를 늙은 나이에 흔히 볼 수 있다.

주근깨 경우에는 멜라닌세포수가 변하지 않지만 멜라닌세포의 크기와 멜라닌색소 만드는 기능이 증가하여 양쪽 볼에 나비 모양으로 갈색 반점들이 모여 주근깨를 만든다.

멜라닌세포의 수가 정상적이지만 멜라닌색소의 합성이 증가하여 보통 광대뼈 부분에 가끔 뺨, 이마, 턱에 갈색 반점이 불규칙적인 좌우 대칭적인 모양으로 기미는 발생한다. 자외선, 호르몬 영향이 크다. 그래서 남자부터 여성에게, 임신 중에도 많이 생긴다.

살면서 햇빛을 오래 동안 계속적으로 받은 얼굴, 목, 발, 손, 다리에 멜라닌세포의 수와 멜라닌색소의 합성의 증가로 경계가 명확한 반점이 발생한다. 60세 이상 나이에 90% 나타난다고 한다.

자외선을 오랫동안 심하게 받은 영향으로 얼굴과 팔에 얼룩덜룩한 불규칙적인 색소침착과 반점들이 생긴다.

2.4.3.4 얼굴 볼륨 감소

자외선은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 층에 침투하지만 피하지방층에 침투하지 못 한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자외선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피하지방층의 지방세포의 기질 합성하는 기능이 감소하고, 지방세포 크기와,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양이 감소되어 햇빛을 계속적으로 받는 얼굴의 이마, 볼, 눈 주위, 턱 주위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얼굴 볼륨 감소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 비해 마른 사람이 더 늙어 보이고 주름살이 많은 이유는 얼굴 볼륨 감소 때문이다.

2.4.3.5 피부 건조

표피의 각질층이 감소하고 각질층의 세포 사이에 준체한 기질의 합성이 감

소하여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장벽 기능이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진다. 또한 피부조직에 물 분자와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이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증이 발생한다.

2.4.3.6 모세 혈관 확장증

피부에 존재하는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와 같은 세포들은 혈관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합성할 기능이 있다. 반대로 혈관 성장을 억제하는 트롬보스폰딘 (thrombospondin)이라는 물질도 있다.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혈관세포 성장인자를 합성하는 기능이 증가되고 반대로 트롬보스폰딘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에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모세 혈관 확장증상이 일어난다.

2.4.3.7 노인 자반증

피부의 혈관을 둘러싸는 진피조직들이 감소해지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도 혈관이 손상이 받고 쉽게 파괴되어야 출혈이 되고 멍이 된다(정진호, 2010, pp.93-137).

2.5 연령별 피부 상태

2.5.1 20대 사람의 피부 상태

20대 초반에는 아름다운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25세 되면 서서히 피부조직이나 피부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피부노화가 시작된다. 이때는 피지량이 감소돼야 눈, 볼, 입 같은 피지분비가 적은 부위에 잔주름이 생긴다. 피부가 거칠어지는 느낌이 오고 없었던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고 예민해진다. 그래서 20대부터 노화방지를 위해 맞는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

2.5.2 30대 피부의 상태

피부노화가 피부 겉으로 나타나는 시대이다. 세포재생 주기가 늘어지고, 윤

기가 없어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쉽게 생기고, 유원섬유와 탄력 섬유양의 양과 밀도가 늘어난다. 피부의 보습기능이 감소되고 세안 후에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 중성피부, 지성피부유형에서 건성피부로 바뀐다. 표정주름이 정확하게 생기고 잔주름이 형성되고 모공의 크기가 커지고 30대 후반에는 얼굴이 처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부 노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2.5.3 40대 나이 피부 상태

주름, 색소반점, 피부 두께가 얇아짐, 얼굴 볼륨 감소, 모세혈관확장 등 피부 노화의 증상들이 두드러지는 시기다. 눈 부위, 이마, 코 입술 사이에 주름이 잡히고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피부 투명감이 없어져서 피부색이 칙칙해진다. 광대뼈, 볼, 이마, 눈가에 색소반점들이 나타난다. 눈 밑, 볼이 처지고 볼과 턱선이 늘어져 보인다.

2.6 기초 화장품

피부 구조와 작용, 기능을 잘 조절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를 청결히 해주는, 피부의 보습작용을 유지시키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다.

기초화장품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기능, 세정, 청결, 보습, 보호, 항건조, 항산화, 피부 노화예방, 자외선예방, 스킨케어 등 기능이 있다.

2.6.1 세안용 화장품

세안용화장품은 제제, 식기 등에 비하면 피부에 적용되므로 과도한 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안용화장품을 피부표면층에 부착되어 있는 피지, 각질층의 딱지, 피지의 산화분해물, 땀의 잔여물 등 피부의 생리대사물, 먼지, 미생물, 메이크업 화장품 등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쓴다.

세안용화장품에는 클렌징 마스크, 계면 활성제형으로서 비누, 클렌징 폼, 클렌징 젤 등과 용체형으로서 클렌징크림, 클렌징 로션 등이 속한다.

2.6.2 화장수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을 가용화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화시켜 외관을 투명 액상으로 하는 화장품으로 피부를 청결, 유분·수분 균형을 유지,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피부표면에 바른다. 화장수를 유연 화장수, 수렴 화장수, 세정 화장수, 다층식화장수 등 분리한다.

2.6.3 유액

화장수와 크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통 유분량은 적고 유동성이 있는 에멀전이다. 유분·수분 공급, 보습 효과가 있다. 수성성분비가 유성성분비에 비해 크기 때문에 피부에 발림성이 좋고 스며들기기 쉽다.

2.6.4 크림

화장수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이다. 크림산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유액에 비하면 안정성이 넓고 유분·수분, 보습제 매우 큰 비율로 배합할 수 있다. 바니싱크림, 유분·수분 형 중성크림, 마사지크림, 클렌징크림, 유분·수분 형 에몰리언트 크림, 무수 유성타입 클렌징크림 등 종류가 있다.

2.6.5 젤

외관상태가 균일하며 투명에서 반투명상태이고 수분보급, 보습, 청량료과로 가벼운 메이크업 클렌징제의 기제 베이스로 사용한다. 메이크업 제거용 젤, 수분보급 보습용 젤 등이 있다.

2.6.6 팩 마스크

피부의 각질층은 팩에 함유된 수분, 보습제, 에몰리언트제 뿐만 아니라 폐쇄효과에 의해 피하에서 올라온 수분으로 보습이 유지되고 유연해진다. 피부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우수한 청정효과도 있다. 팩은 필 오프타입으로서 젤리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닦아내기와 씻어내기 타입으로서 크림상, 점토상, 젤리상, 에어줄을 적용하여 분말상이 박리타입, 도포타입 등 종류가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 서울, 경기도와 몽골 울란바타르에 거주하는 20대~40대 여성 각각 183 명을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한국 여성 20~29세 69명, 30~39세 54명, 40~49세가 60명, 몽골 여성 20~29세, 30~39세 각각 69명, 40~49세가 45명을 조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04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 실시하였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홍진이(2007), 이은영(2006) 강지영(2013), 조한희(2013), 김지원(2010), 김수정(2001), 김유선(2008) 등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몸 상태, 피부 상태,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상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상환, 피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 음주·흡연 여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상환이라고 크게 8 까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풀어보면 일반적인 특성 5개 문항, 일반적인 몸 상태 9문항, 피부 상태 5문항,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상환 9문항, 화장품 사용에 대한 11문항, 피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11문항, 피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에 대한 6문항, 음주·흡연 여부 2문항,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15문항 모두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3.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V.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피부 상태, 피부 관리 태도, 피부에 상환에 미치는 화장품 사용, 피부 상환에 미치는 생활습관 식습관, 피부 상환에 미치는 흡연과 음주, 피부 상환에 미치는 생활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 실시하여
한국과 몽골 여성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표 3 > 설문지 구성

구분	세부사항	문항 수
일반적인 특성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자녀수, 평균 수입	5
일반적인 몸 상태	키, 몸무게, 임심, 피임약, 변비, 만성 질환, 유전적인 질환, 피부 질환, 미용 노화방지를 위한 성향 수술	9
피부 유형 피부 상태	유형, 피부 관심 부분, 혈관 확장, 민감 상태, 주름상태	5
피부 관리에 대한 상환	피부 관리 지식, 세안 수, 세안 물 온도, 세안 사용 클렌저 사용 반복, 폼 클렌징 종류, 관리실 방문 횟수, 스스로 관리 할때 사용하는 제품, 마사지 크림과 마스크 팩 사용 횟수, 각질 제거를 하는 반복	9
피부 관리에 관련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상황	색조화장품 반복, 화장품 주안점, 화장품 선택에 누구 영향,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 종류, 로션, 에센스, 영양 크림, 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하는 반복	11
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	물 섭취, 커피섭취, 좋아하는 맛, 주로 먹는 음식, 인스턴트식품 섭취, 건강식품 섭취,	6
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음주, 흡연 여부	흡연 여부, 흡연 량, 음주여부, 음주반복,	2
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	수면 량, 눕는 방향, 기상과 취침, 운동,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일하는 환경, 근로 시간, 햇빛노출, 야외 활동, 자외선 노출된 취미 활동, 자외선 방지 방법, 환경 오염, 공기 오염	15
		64

IV. 연구결과 및 고찰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표4>과 같다. 한국 여성과 몽골여성은 각각 183명이 있으며 한국여성 연령별로는 20~29세가 69명에 37.7% 가장 많았으며, 다음에는 40~49세가 60명에 32.8%, 30~39세가 54명에 29.5% 순으로 나타났고 몽골여성 연령별로는 20~29세, 30~39세가 각각 69명에 37.7%를 나타냈으며 40~49세가 45명에 24.6%로 나타났다.

한국여성 학력별로는 고졸이 77명에 42.1%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면 다음으로 대졸 56명에 30.6%, 초대졸 28명에 15.3%, 대학원이상 16명에 8.7%, 고졸이하 6명에 3.3% 나타났고 몽골여성 학력별로는 대졸이 129명에 70.75%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다음에는 고졸 34명에 18.6%, 초대졸 15명에 8.2%, 대학원이상 5명에 2.7%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88명에 48.1% 가장 많았으며 기혼이 85명에 46.4%, 기타 9명에 4.9% 나타났으며 몽골여성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140명에 76.5%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32명에 17.5%, 기타는 11명에 6.0%이 나타났다.

한국여성 자녀 경우에는 자녀가 없다는 82명 44.8%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명이 45명에 24.6%, 2명이 42명에 23.0%, 3명 이상 11명에 6.0%로 나타났으며 몽골여성 경우에는 2명이 61명에 33.3%가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1명이 49명에 26.8%, 3명 이상 39명에 21.3%, 없다 34명에 18.6%로 나타났다.

한국여성 수입별로는 150만 이상이 72명 39.3% 가장 많았으며 110~150만원 47명에 25.7%, 80~110만원이 21명에 11.5%, 50~80만원이 28명에 15.3%, 20~50만원 15명에 8.2% 나타났고 몽골여성 수입별로는 20~25만원이 90명에 49.2%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80만원 51명에 27.9%, 80~110만원 18명에 9.8%, 20만원 미만 13명에 7.1%, 110~150만원 11명에 6.0%로 나타났다.

<표 4 >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n=183)	비율(%)
연령	한국	20-29세	69	37.7
		30-39세	54	29.5
		40-49세	60	32.8
	몽골	20-29세	69	37.7
		30-39세	69	37.7
		40-49세	45	24.6
학력	한국	고졸이하	6	3.3
		고졸	77	42.1
		초 대졸	28	15.3
		대졸	56	30.6
		대학원 이상	16	8.7
	몽골	고졸이하	0	0
		고졸	34	18.6
		초 대졸	15	8.2
		대졸	129	70.5
		대학원이상	5	2.7
결혼	한국	미혼	88	48.1
		기혼	85	46.4
		기타	9	4.9
	몽골	미혼	32	17.5
		기혼	140	76.5
		기타	11	6.0
자녀	한국	없다	82	44.8
		1명	45	24.6
		2명	42	23.0
		3명 이상	11	6.0
	몽골	없다	34	18.6
		1명	49	26.8
		2명	61	33.3
		3명 이상	39	21.3
수입	한국	20만원 미만	0	0
		20-50만원	15	18.2
		50-80만원	28	15.3
		80-110만원	21	11.5
		110-150만원	47	25.7
		150만원 이상	72	39.3
	몽골	20만원 미만	13	7.1
		20-50만 원	90	49.2
		50-80만원	51	27.9
		80-110만원	18	9.8
		110-150만원	11	6.0
		150만원 이상	0	0

4.2 몽골과 한국여성의 일반적인 몸 상태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이 몸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여성의 키의 경우 160~170cm이 90명에 49.2%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50~160cm 71명에 38.3%, 170cm 이상 14명에 7.7%, 150cm 미만 6명에 3.3%로 나타났으며 몽골여성의 경우 150~160cm 107명에 58.5%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0~170cm 56명에 30.6%, 150cm 미만 15명에 8.2%, 170 이상 5명에 2.7%로 나타났다.

임신 여부 경우에는 한국여성 중에 예가 3명에 1.6%, 아니오가 180명에 98.3% 이었으며 몽골여성 중에 예가 8명에 4.4%, 아니오가 175명에 96.2% 으로 나타났다.

피임 여부로 한국여성 경우에는 93.4%가 그렇다고, 6.6%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90.2%가 그렇다고, 9.8%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변비 여부에는 한국여성의 경우 24.6%가 변비가 있다고 하였으며, 75.4%는 없다고, 몽골여성의 경우 50.3%가 있다고, 49.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여부에 한국여성의 경우 7.7%가 있다고, 92.3%는 없다고 하였으며 몽골여성의 경우 19.1%가 있다고, 80.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유전질환 여부에는 한국과 몽골여성의 2.7%가 있다고, 97.3%가 없다고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피부질환 여부에는 한국여성의 경우 8.7%가 있다고, 90.7%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몽골여성의 경우 3.8%가 있다고 96.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형수술 여부에는 한국여성의 경우 28.4%는 예라고, 70.5%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몽골여성의 경우 4.9% 예라고, 95.1%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5 > 일반적인 몸 상태

구분		빈도(n=183)		비율(%)	
		한국	몽골	한국	몽골
키	150cm미만	6	15	3.3	8.2
	150-160cm	71	107	38.8	58.5
	160-170cm	90	56	49.2	30.6
	170cm이상	14	5	7.7	2.7
몸무게	40kg미만	2	2	1.1	1.1
	40-50kg	67	17	36.6	9.3
	50-60kg	82	69	44.8	37.7
	60-70kg	24	58	13.1	31.7
	70kg이상	8	37	4.4	20.2
임신	예	3	8	1.6	4.4
	아니오	176	175	96.2	95.6
폐임	예	171	165	93.4	90.2
	아니오	12	18	6.6	9.8
변비	예	45	92	24.6	50.3
	아니오	138	91	75.4	49.7
만성질환	예	14	35	7.7	19.1
	아니오	169	148	92.3	80.9
유전질환	예	5	5	2.7	2.7
	아니오	178	178	97.3	97.3
피부질환	예	16	7	8.7	3.8
	아니오	166	176	90.7	96.2
성형수술	예	52	9	28.4	4.9
	아니오	129	174	70.5	95.1

4.3 몽골과 한국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에 대한 분석

피부유형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복합성이 63명에 34.4%이 가장 높았으며 모른다는 12명에 6.6%이 가장 낮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복합성이 79명에 43.2% 가장 높은 분포로, 중성과 지성의 각각 8명에 4.4%로 가장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피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주근깨와 기미는 44명에 24.0%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피부건조 42명에 23.0%, 여드름 35명에 19.1%, 피지과다분비 24명에 13.1%, 주름이 21%에 11.5%, 탄력이 17명에 9.3%로 나타났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주근깨와 기미가 53명에 29.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름이 48명에 26.2%, 피부건조 46명에 25.1%, 여드름 20명에 10.9%, 탄력이 10명에 5.5%, 피지과다분비 6명에 3.3%이 나타났다.

볼 부위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볼 부위에 당김이 있다는 52명에 28.4%가 가장 높았으며 붉은 혈관이 확장되어 있다가 21명에 11.5%가 가장 낮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온도 영향으로 발갛게 된다가 57명에 31.1%가 가장 높았으며 붉지 않고 혈관이 보이지 않다가 23명에 12.6% 가장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해당피부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쉽게 건조가 54명에 22.7%가 가장 높았으며 변화가 없다가 27명에 11.3%가 가장 낮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 쉽게 건조 84명에 52.3%가 가장 높았으며 번들거리다 17명에 6.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면 주름 상태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특정한 표정을 지을 경우에 주름이 보인다가 64명에 35.0%가 가장 높았으며,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깊은 주름이 보인다가 14명에 7.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도 잔주름이 보인다가 68명에 37.2%가 가장 높았으며 정상적인 상태에도 주름이 없다가 34명에 18.6%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 안면 피부 상태

구분		빈도(n=183)		비율(%)	
		한국	몽골	한국	몽골
피부유형	건성	53	60	29.0	32.8
	중성	27	8	14.8	4.4
	지성	28	8	15.3	4.4
	복합성	63	79	34.4	43.2
	모른다	12	28	6.6	15.3
피부문제	피부건조	42	46	23.0	25.1
	주근깨와 기미	44	53	24.0	29.0
	주름	21	48	11.5	26.2
	여드름	35	20	19.1	10.9
	피지과다분비	24	6	13.1	3.3
	탄력	17	10	9.3	5.5
볼 부위	붉은 혈관	21	42	11.5	23.0
	볼 부위 당김	52	26	28.4	14.2
	붉지 않고 혈관 보이지 않음	33	23	18.0	12.6
	모공 눈에 띈	31	35	16.9	19.1
	온도영향 빨갛게 됨	40	57	21.9	31.1
피부어디 (다중응답)	쉽게 붉어진다	41	59	17.2	22.7
	쉽게 여드름	39	49	16.4	18.8
	민감한 편	43	32	18.1	12.3
	변화 없음	27	19	11.3	7.3
	쉽게 건조	54	84	22.7	52.3
	변들거림	34	17	14.3	6.5
안면주름	정상적인 상태에 주름이 없다	56	34	30.6	18.6
	정상적인 상태에도 잔주름이 보인다.	48	68	26.2	37.2
	특별한 표정을 지을 경우에 주름이 보인다.	64	42	35.0	23.0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깊은 주름이 보인다.	14	39	7.7	21.3

4.4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분석

4.4.1 몽골과 한국 여성의 연령과 지식습득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지식습득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에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연령대와 지식습득의 경우에는 연관성 즉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지식습득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20~30대는 TV, 라디오, 인터넷에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40대의 경우는 위와 더불어 피부 관리실의 비율이 동등하게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연령대와 지식습득의 경우에는 연관성 즉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피부 관리실 등에서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20~30대 지식습득 경우에는 대부분은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몽골여성 40대 경우에는 대부분은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다는 반면에 한국여성 40대 경우에는 대부분은 피부 지식을 피부 관리실에서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습득

구분	지식습득				전체
	책, 신문, 잡지 등	TV, 라디오, 인터넷 등	친구나 친척 등	피부 관리실, 피부과 등 전문가	
빈도	16	35	12	6	69
20-29세 연령 중 %	23.2%	50.7%	17.4%	8.7%	100.0%
전체 %	8.7%	19.1%	6.6%	3.3%	37.7%
빈도	16	22	19	12	69
30-39세 연령 중 %	23.2%	31.9%	27.5%	17.4%	100.0%
전체 %	8.7%	12.0%	10.4%	6.6%	37.7%
빈도	17	19	6	3	45
40-49세 연령 중 %	37.8%	42.2%	13.3%	6.7%	100.0%
전체 %	9.3%	10.4%	3.3%	1.6%	24.6%
빈도	49	76	37	21	183
몽골전체 연령 중 %	26.8%	41.5%	20.2%	11.5%	100.0%
전체 %	26.8%	41.5%	20.2%	11.5%	100.0%
Pearson 카이제곱 12.284*					
빈도	10	50	2	7	69
20-29세 연령 중 %	14.5%	72.5%	2.9%	10.1%	100.0%
전체 %	5.5%	27.3%	1.1%	3.8%	37.7%
빈도	4	34	4	12	54
30-39세 연령 중 %	7.4%	63.0%	7.4%	22.2%	100.0%
전체 %	2.2%	18.6%	2.2%	6.6%	29.5%
빈도	12	17	14	17	60
40-49세 연령 중 %	20.0%	28.3%	23.3%	28.3%	100.0%
전체 %	6.6%	9.3%	7.7%	9.3%	32.8%
빈도	26	101	20	36	183
한국전체 연령 중 %	14.2%	55.2%	10.9%	19.7%	100.0%
전체 %	14.2%	55.2%	10.9%	19.7%	100.0%
Pearson 카이제곱 34.123***					

*** p<.001

4.4.2 몽골과 한국 여성의 연령과 세안횟수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세안횟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세안을 2번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세안횟수의 경우는 연관성 즉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세안횟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세안을 2번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세안횟수의 경우는 연관성 즉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세안횟수의 연관성 즉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대 모두에서 대부분은 세안을 하루에 2번 한다고 할 수 있었다.

<표 8 > 세안횟수

구분		세안횟수				전체
		1번	2번	3번 이상	하지 않다	
20-29세	빈도	20	45	2	2	69
	연령 중 %	29.0%	65.2%	2.9%	2.9%	100.0%
	전체 %	10.9%	24.6%	1.1%	1.1%	37.7%
30-39세	빈도	27	40	1	1	69
	연령 중 %	39.1%	58.0%	1.4%	1.4%	100.0%
	전체 %	14.8%	21.9%	.5%	.5%	37.7%
40-49세	빈도	17	25	2	1	45
	연령 중 %	37.8%	55.6%	4.4%	2.2%	100.0%
	전체 %	9.3%	13.7%	1.1%	.5%	24.6%
몽골전체	빈도	64	110	5	4	183
	연령 중 %	35.0%	60.1%	2.7%	2.2%	100.0%
	전체 %	35.0%	60.1%	2.7%	2.2%	100.0%
Pearson 카이제곱 2.894						
20-29세	빈도	0	58	10	1	69
	연령 중 %	.0%	84.1%	14.5%	1.4%	100.0%
	전체 %	.0%	31.7%	5.5%	.5%	37.7%
30-39세	빈도	2	38	13	1	54
	연령 중 %	3.7%	70.4%	24.1%	1.9%	100.0%
	전체 %	1.1%	20.8%	7.1%	.5%	29.5%
40-49세	빈도	3	44	11	2	60
	연령 중 %	5.0%	73.3%	18.3%	3.3%	100.0%
	전체 %	1.6%	24.0%	6.0%	1.1%	32.8%
한국전체	빈도	5	140	34	4	183
	연령 중 %	2.7%	76.5%	18.6%	2.2%	100.0%
	전체 %	2.7%	76.5%	18.6%	2.2%	100.0%
Pearson 카이제곱 6.120						

4.4.3 몽골과 한국 여성의 연령과 세안하는 물 온도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세안하는 물 온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는 찬물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에는 미온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세안하는 물의온도의 경우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세안하는 물 온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미온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세안하는 물 온도의 경우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30~40대에서는 미온수로 세안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몽골여성 20대 경우에는 찬물로 세안하는 비율이 강장 많은 반면에 한국여성 20대 경우에는 미온수로 세안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9 > 세안하는 물 온도

구분		물 온도				전체
		뜨거운 물	찬물	변갈아	미온수	
20-29세	빈도	2	31	10	26	69
	연령 중 %	2.9%	44.9%	14.5%	37.7%	100.0%
	전체 %	1.1%	16.9%	5.5%	14.2%	37.7%
30-39세	빈도	5	25	8	31	69
	연령 중 %	7.2%	36.2%	11.6%	44.9%	100.0%
	전체 %	2.7%	13.7%	4.4%	16.9%	37.7%
40-49세	빈도	2	10	12	21	45
	연령 중 %	4.4%	22.2%	26.7%	46.7%	100.0%
	전체 %	1.1%	5.5%	6.6%	11.5%	24.6%
몽골 전체	빈도	9	66	30	78	183
	연령 중 %	4.9%	36.1%	16.4%	42.6%	100.0%
	전체 %	4.9%	36.1%	16.4%	42.6%	100.0%

Pearson 카이제곱 9.920

20-29세	빈도	0	14	20	35	69
	연령 중 %	.0%	20.3%	29.0%	50.7%	100.0%
	전체 %	.0%	7.7%	10.9%	19.1%	37.7%
30-39세	빈도	2	12	12	28	54
	연령 중 %	3.7%	22.2%	22.2%	51.9%	100.0%
	전체 %	1.1%	6.6%	6.6%	15.3%	29.5%
40-49세	빈도	4	11	9	36	60
	연령 중 %	6.7%	18.3%	15.0%	60.0%	100.0%
	전체 %	2.2%	6.0%	4.9%	19.7%	32.8%
한국 전체	빈도	6	37	41	99	183
	연령 중 %	3.3%	20.2%	22.4%	54.1%	100.0%
	전체 %	3.3%	20.2%	22.4%	54.1%	100.0%

Pearson 카이제곱 7.990

4.4.4 몽골과 한국 여성의 연령과 클렌징 사용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클렌저사용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는 저녁에만 사용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에는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클렌저 사용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클렌저사용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40대는 저녁에만 사용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경우는 날마다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클렌저 사용의 경우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30대는 클렌저를 가끔 사용하지만 한국여성의 30대는 클렌저를 매일 사용하는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클렌징 사용 반복

구분		클렌저 사용					전체
		날마다	저녁 에만	자주	가끔	사용 안함	
20-29 세	빈도	14	34	2	19		69
	연령 중 %	20.3%	49.3%	2.9%	27.5%		100.0%
	전체 %	7.7%	18.6%	1.1%	10.4%		37.7%
30-39 세	빈도	20	21	1	27		69
	연령 중 %	29.0%	30.4%	1.4%	39.1%		100.0%
	전체 %	10.9%	11.5%	.5%	14.8%		37.7%
40-49 세	빈도	6	16	1	22		45
	연령 중 %	13.3%	35.6%	2.2%	48.9%		100.0%
	전체 %	3.3%	8.7%	.5%	12.0%		24.6%
몽골 전체	빈도	40	71	4	68		183
	연령 중 %	21.9%	38.8%	2.2%	37.2%		100.0%
	전체 %	21.9%	38.8%	2.2%	37.2%		100.0%

Pearson 카이제곱 10.285

20-29 세	빈도	24	40	3	2	0	69
	연령 중 %	34.8%	58.0%	4.3%	2.9%	.0%	100.0%
	전체 %	13.1%	21.9%	1.6%	1.1%	.0%	37.7%
30-39 세	빈도	26	24	1	3	0	54
	연령 중 %	48.1%	44.4%	1.9%	5.6%	.0%	100.0%
	전체 %	14.2%	13.1%	.5%	1.6%	.0%	29.5%
40-49 세	빈도	23	27	5	4	1	60
	연령 중 %	38.3%	45.0%	8.3%	6.7%	1.7%	100.0%
	전체 %	12.6%	14.8%	2.7%	2.2%	.5%	32.8%
한국 전체	빈도	73	91	9	9	1	183
	연령 중 %	39.9%	49.7%	4.9%	4.9%	.5%	100.0%
	전체 %	39.9%	49.7%	4.9%	4.9%	.5%	100.0%

Pearson 카이제곱 8.467

4.4.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클렌징 종류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클렌저 종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비누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클렌저 종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클렌저 종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클렌징 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클렌저 종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비누사용이 가장 많은 반면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클렌징 폼 사용이 가장 많았다.

<표 11> 클렌징 종류

구분		클렌징 종류					전체
		비누	클렌징 폼	효소 세안제	클렌징클 로스	사용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29	17	7	8	8	69
	연령 중 %	42.0%	24.6%	10.1%	11.6%	11.6%	100.0%
	전체 %	15.8%	9.3%	3.8%	4.4%	4.4%	37.7%
30-39 세	빈도	30	19	8	4	8	69
	연령 중 %	43.5%	27.5%	11.6%	5.8%	11.6%	100.0%
	전체 %	16.4%	10.4%	4.4%	2.2%	4.4%	37.7%
40-49 세	빈도	26	14	2	1	2	45
	연령 중 %	57.8%	31.1%	4.4%	2.2%	4.4%	100.0%
	전체 %	14.2%	7.7%	1.1%	.5%	1.1%	24.6%
몽골 전체	빈도	85	50	17	13	18	183
	연령 중 %	46.4%	27.3%	9.3%	7.1%	9.8%	100.0%
	전체 %	46.4%	27.3%	9.3%	7.1%	9.8%	100.0%

Pearson 카이제곱 9.068

20-29 세	빈도	3	47	4	3	12	69
	연령 중 %	4.3%	68.1%	5.8%	4.3%	17.4%	100.0%
	전체 %	1.6%	25.7%	2.2%	1.6%	6.6%	37.7%
30-39 세	빈도	2	43	4	1	4	54
	연령 중 %	3.7%	79.6%	7.4%	1.9%	7.4%	100.0%
	전체 %	1.1%	23.5%	2.2%	.5%	2.2%	29.5%
40-49 세	빈도	8	36	2	7	7	60
	연령 중 %	13.3%	60.0%	3.3%	11.7%	11.7%	100.0%
	전체 %	4.4%	19.7%	1.1%	3.8%	3.8%	32.8%
한국 전체	빈도	13	126	10	11	23	183
	연령 중 %	7.1%	68.9%	5.5%	6.0%	12.6%	100.0%
	전체 %	7.1%	68.9%	5.5%	6.0%	12.6%	100.0%

Pearson 카이제곱 14.904

4.4.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방문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 여성의 연령대와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방문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 여성의 연령대와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이 동일하게 연령대에 모두에서 방문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12> 피부 관리실 방문 횟수

구분		방문 횟수					전체
		일주일 1-2회	한달 1번	한달 1-2번	특별한 날전	방문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2	12	1	18	36	69
	연령 중 %	2.9%	17.4%	1.4%	26.1%	52.2%	100.0%
	전체 %	1.1%	6.6%	.5%	9.9%	19.8%	37.9%
30-39 세	빈도	1	9	5	20	34	69
	연령 중 %	1.4%	13.0%	7.2%	29.0%	49.3%	100.0%
	전체 %	.5%	4.9%	2.7%	11.0%	18.7%	37.9%
40-49 세	빈도	3	7	0	9	25	44
	연령 중 %	6.8%	15.9%	.0%	20.5%	56.8%	100.0%
	전체 %	1.6%	3.8%	.0%	4.9%	13.7%	24.2%
몽골전 체	빈도	6	28	6	47	95	182
	연령 중 %	3.3%	15.4%	3.3%	25.8%	52.2%	100.0%
	전체 %	3.3%	15.4%	3.3%	25.8%	52.2%	100.0%

Pearson 카이제곱 9.320

20-29 세	빈도	5	14	7	8	35	69
	연령 중 %	7.2%	20.3%	10.1%	11.6%	50.7%	100.0%
	전체 %	2.7%	7.7%	3.8%	4.4%	19.1%	37.7%
30-39 세	빈도	7	12	5	10	20	54
	연령 중 %	13.0%	22.2%	9.3%	18.5%	37.0%	100.0%
	전체 %	3.8%	6.6%	2.7%	5.5%	10.9%	29.5%
40-49 세	빈도	10	8	11	10	19	60
	연령 중 %	16.7%	13.3%	18.3%	16.7%	31.7%	100.0%
	전체 %	5.5%	4.4%	6.0%	5.5%	10.4%	32.8%
한국전 체	빈도	22	34	23	28	74	183
	연령 중 %	12.0%	18.6%	12.6%	15.3%	40.4%	100.0%
	전체 %	12.0%	18.6%	12.6%	15.3%	40.4%	100.0%

Pearson 카이제곱 14.448

4.4.7 몽골과 한국여성의 홈케어 피부 관리와의 교차분석

몽골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마스크와 팩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대에서 마스크와 팩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 홈케어

구분		홈케어					합계
		마스크와 팩	마사지 크림	천연 재료	전통 재료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41	20	11	4	10	69
	연령 중 %	59.4%	29.0%	15.9%	5.8%	14.5%	
	전체 %	22.4%	10.9%	6.0%	2.2%	5.5%	37.7%
30-39 세	빈도	48	17	2	7	5	69
	연령 중 %	69.6%	24.6%	2.9%	10.1%	7.2%	
	전체 %	26.2%	9.3%	1.1%	3.8%	2.7%	37.7%
40-49 세	빈도	32	11	2	6	1	45
	연령 중 %	71.1%	24.4%	4.4%	13.3%	2.2%	
	전체 %	17.5%	6.0%	1.1%	3.3%	.5%	24.6%
몽골 전체	빈도	121	48	15	17	16	183
	전체 %	16.5%	60.4%	15.4%	6.6%	1.1%	100.0%
20-29 세	빈도	52	13	9	4	6	69
	연령 중 %	75.4%	18.8%	13.0%	5.8%	8.7%	
	전체 %	28.9%	7.2%	5.0%	2.2%	3.3%	38.3%
30-39 세	빈도	33	12	7	3	9	52
	연령 중 %	63.5%	23.1%	13.5%	5.8%	17.3%	
	전체 %	18.3%	6.7%	3.9%	1.7%	5.0%	28.9%
40-49 세	빈도	30	17	7	3	10	59
	연령 중 %	50.8%	28.8%	11.9%	5.1%	16.9%	
	전체 %	16.7%	9.4%	3.9%	1.7%	5.6%	32.8%
한국 전체	빈도	115	42	23	10	25	180
	전체 %	63.9%	23.3%	12.8%	5.6%	13.9%	100.0%

4.4.8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마스크 팩 등의 사용횟수와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마스크 팩 사용횟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한 달에 1회 사용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마스크 팩 사용횟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마스크 팩 사용횟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1주일에 2회를 사용한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일주일에 1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마스크 팩 사용횟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몽골여성보다 한국여성이 팩 사용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4> 마사지 크림, 마스크 팩 등의 사용하는 반복

구분		팩 사용횟수						전체
		매일	일주일 2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한 달 2회 이상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2	10	5	36	16	0	69
	연령 중 %	2.9%	14.5%	7.2%	52.2%	23.2%	.0%	100.0%
	전체 %	1.1%	5.5%	2.7%	19.7%	8.7%	.0%	37.7%
30-39 세	빈도	3	11	4	30	20	1	69
	연령 중 %	4.3%	15.9%	5.8%	43.5%	29.0%	1.4%	100.0%
	전체 %	1.6%	6.0%	2.2%	16.4%	10.9%	.5%	37.7%
40-49 세	빈도	2	7	4	21	8	3	45
	연령 중 %	4.4%	15.6%	8.9%	46.7%	17.8%	6.7%	100.0%
	전체 %	1.1%	3.8%	2.2%	11.5%	4.4%	1.6%	24.6%
몽골 전체	빈도	7	28	13	87	44	4	183
	연령 중 %	3.8%	15.3%	7.1%	47.5%	24.0%	2.2%	100.0%
	전체 %	3.8%	15.3%	7.1%	47.5%	24.0%	2.2%	100.0%
Pearson 카이제곱 8.497								
20-29 세	빈도	1	24	21	11	5	6	68
	연령 중 %	1.5%	35.3%	30.9%	16.2%	7.4%	8.8%	100.0%
	전체 %	.5%	13.2%	11.5%	6.0%	2.7%	3.3%	37.4%
30-39 세	빈도	2	17	10	11	4	10	54
	연령 중 %	3.7%	31.5%	18.5%	20.4%	7.4%	18.5%	100.0%
	전체 %	1.1%	9.3%	5.5%	6.0%	2.2%	5.5%	29.7%
40-49 세	빈도	4	13	16	12	4	10	60
	연령 중 %	6.7%	21.7%	26.7%	20.0%	6.7%	16.7%	100.0%
	전체 %	2.2%	7.1%	8.8%	6.6%	2.2%	5.5%	33.0%
한국 전체	빈도	7	54	47	34	13	26	182
	연령 중 %	3.8%	29.7%	25.8%	18.7%	7.1%	14.3%	100.0%
	전체 %	3.8%	29.7%	25.8%	18.7%	7.1%	14.3%	100.0%
Pearson 카이제곱 10.892								

4.2.9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각질제거 사용 반복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각질제거횟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각질제거 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각질제거횟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각질제거횟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1주일에 1~2회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각질제거횟수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각질제거를 안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여성의 경우는 1주일에 1~2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5> 각질제거를 사용하는 반복

구분		각질제거 횟수						전체
		쓰지 않다	매일	1주 1-2회	1주 3회 이상	한 달 1회	한 달 2회	
20-29 세	빈도	29	0	14	4	22	0	69
	연령 중 %	42.0%	.0%	20.3%	5.8%	31.9%	.0%	100.0%
	전체 %	15.9%	.0%	7.7%	2.2%	12.1%	.0%	37.9%
30-39 세	빈도	33	1	14	1	19	1	69
	연령 중 %	47.8%	1.4%	20.3%	1.4%	27.5%	1.4%	100.0%
	전체 %	18.1%	.5%	7.7%	.5%	10.4%	.5%	37.9%
40-49 세	빈도	25	0	8	0	11	0	44
	연령 중 %	56.8%	.0%	18.2%	.0%	25.0%	.0%	100.0%
	전체 %	13.7%	.0%	4.4%	.0%	6.0%	.0%	24.2%
몽골 전체	빈도	87	1	36	5	52	1	182
	연령 중 %	47.8%	.5%	19.8%	2.7%	28.6%	.5%	100.0%
	전체 %	47.8%	.5%	19.8%	2.7%	28.6%	.5%	100.0%

Pearson 카이제곱 9.035

20-29 세	빈도	7	3	37	2	17	3	69
	연령 중 %	10.1%	4.3%	53.6%	2.9%	24.6%	4.3%	100.0%
	전체 %	3.8%	1.6%	20.2%	1.1%	9.3%	1.6%	37.7%
30-39 세	빈도	10	1	20	2	12	9	54
	연령 중 %	18.5%	1.9%	37.0%	3.7%	22.2%	16.7%	100.0%
	전체 %	5.5%	.5%	10.9%	1.1%	6.6%	4.9%	29.5%
40-49 세	빈도	13	0	32	4	9	2	60
	연령 중 %	21.7%	.0%	53.3%	6.7%	15.0%	3.3%	100.0%
	전체 %	7.1%	.0%	17.5%	2.2%	4.9%	1.1%	32.8%
한국 전체	빈도	30	4	89	8	38	14	183
	연령 중 %	16.4%	2.2%	48.6%	4.4%	20.8%	7.7%	100.0%
	전체 %	16.4%	2.2%	48.6%	4.4%	20.8%	7.7%	100.0%

Pearson 카이제곱 18.561*

* p<.05

4.5 화장품 사용에 대한 분석

4.5.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색소화장품 사용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색소화장품 사용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색조화장품 사용과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색소화장품 사용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색조화장품 사용과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16> 색조화장품 사용하는 반복

구분		색조화장품					전체
		쓰지 않다	매일	1주 1-2회	1주 3-4회	1주 5-6회	
20-29 세	빈도	6	47	3	4	9	69
	연령 중 %	8.7%	68.1%	4.3%	5.8%	13.0%	100.0%
	전체 %	3.3%	25.7%	1.6%	2.2%	4.9%	37.9%
30-39 세	빈도	9	46	4	3	7	69
	연령 중 %	13.0%	66.7%	5.8%	4.3%	10.1%	100.0%
	전체 %	4.9%	25.1%	2.2%	1.6%	3.8%	37.9%
40-49 세	빈도	8	30	4	2	1	44
	연령 중 %	17.8%	66.7%	8.9%	4.4%	2.2%	100.0%
	전체 %	4.4%	16.4%	2.2%	1.1%	.5%	24.2%
몽골 전체	빈도	23	123	11	9	17	182
	연령 중 %	12.6%	67.2%	6.0%	4.9%	9.3%	100.0%
	전체 %	12.6%	67.2%	6.0%	4.9%	9.3%	100.0%

Pearson 카이제곱 6.459

20-29 세	빈도	4	37	11	9	8	69
	연령 중 %	5.8%	53.6%	15.9%	13.0%	11.6%	100.0%
	전체 %	2.2%	20.2%	6.0%	4.9%	4.4%	37.7%
30-39 세	빈도	18	22	8	1	5	54
	연령 중 %	33.3%	40.7%	14.8%	1.9%	9.3%	100.0%
	전체 %	9.8%	12.0%	4.4%	.5%	2.7%	29.5%
40-49 세	빈도	13	26	10	7	4	60
	연령 중 %	21.7%	43.3%	16.7%	11.7%	6.7%	100.0%
	전체 %	7.1%	14.2%	5.5%	3.8%	2.2%	32.8%
한국 전체	빈도	35	85	29	17	17	183
	연령 중 %	19.1%	46.4%	15.8%	9.3%	9.3%	100.0%
	전체 %	19.1%	46.4%	15.8%	9.3%	9.3%	100.0%

Pearson 카이제곱 19.108*

* p<.05

4.5.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구매 시 주요점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구매 시 중요사항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구매 시 중요사항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대 모두에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7> 구매 시 주요점

구분		구매 주요						전체
		가격	양	기능	성분	브랜드 이미지	기타	
20-29세	빈도	10	2	52	2	3	0	69
	연령 중 %	14.5%	2.9%	75.4%	2.9%	4.3%	.0%	100.0%
	전체 %	5.5%	1.1%	28.4%	1.1%	1.6%	.0%	37.7%
30-39세	빈도	11	3	44	4	6	1	69
	연령 중 %	15.9%	4.3%	63.8%	5.8%	8.7%	1.4%	100.0%
	전체 %	6.0%	1.6%	24.0%	2.2%	3.3%	.5%	37.7%
40-49세	빈도	9	3	22	5	6	0	45
	연령 중 %	20.0%	6.7%	48.9%	11.1%	13.3%	.0%	100.0%
	전체 %	4.9%	1.6%	12.0%	2.7%	3.3%	.0%	24.6%
몽골 전체	빈도	30	8	118	11	15	1	183
	연령 중 %	16.4%	4.4%	64.5%	6.0%	8.2%	.5%	100.0%
	전체 %	16.4%	4.4%	64.5%	6.0%	8.2%	.5%	100.0%

Pearson 카이제곱 11.805

20-29세	빈도	11	1	41	12	4		69
	연령 중 %	15.9%	1.4%	59.4%	17.4%	5.8%		100.0%
	전체 %	6.0%	.5%	22.4%	6.6%	2.2%		37.7%
30-39세	빈도	5	0	27	13	9		54
	연령 중 %	9.3%	.0%	50.0%	24.1%	16.7%		100.0%
	전체 %	2.7%	.0%	14.8%	7.1%	4.9%		29.5%
40-49세	빈도	6	2	35	15	2		60
	연령 중 %	10.0%	3.3%	58.3%	25.0%	3.3%		100.0%
	전체 %	3.3%	1.1%	19.1%	8.2%	1.1%		32.8%
한국 전체	빈도	22	3	103	40	15		183
	연령 중 %	12.0%	1.6%	56.3%	21.9%	8.2%		100.0%
	전체 %	12.0%	1.6%	56.3%	21.9%	8.2%		100.0%

Pearson 카이제곱 11.888

4.5.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화장품 선택상담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구매 시 선택상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화장품 판매원의 상담을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구매 시 선택상담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구매 시 선택상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에는 광고와 인터넷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구매 시 선택상담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선택상담을 화장품 판매원을 통해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광고, 인터넷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8> 화장품 선택상담

구분		선택상담					전체
		전문가	아는 사람 통해	화장품 판매원	광고, 인터넷	기타	
20-29 세	빈도	2	12	40	14	1	69
	연령 중 %	2.9%	17.4%	58.0%	20.3%	1.4%	100.0%
	전체 %	1.1%	6.6%	22.0%	7.7%	.5%	37.9%
30-39 세	빈도	8	11	43	6	0	68
	연령 중 %	11.8%	16.2%	63.2%	8.8%	.0%	100.0%
	전체 %	4.4%	6.0%	23.6%	3.3%	.0%	37.4%
40-49 세	빈도	2	15	24	4	0	45
	연령 중 %	4.4%	33.3%	53.3%	8.9%	.0%	100.0%
	전체 %	1.1%	8.2%	13.2%	2.2%	.0%	24.7%
몽골 전체	빈도	12	38	107	24	1	182
	연령 중 %	6.6%	20.9%	58.8%	13.2%	.5%	100.0%
	전체 %	6.6%	20.9%	58.8%	13.2%	.5%	100.0%

Pearson 카이제곱 11.805

20-29 세	빈도	2	18	16	32		69
	연령 중 %	2.9%	26.1%	23.2%	46.4%		100.0%
	전체 %	1.1%	9.8%	8.7%	17.5%		37.7%
30-39 세	빈도	8	13	14	19		54
	연령 중 %	14.8%	24.1%	25.9%	35.2%		100.0%
	전체 %	4.4%	7.1%	7.7%	10.4%		29.5%
40-49 세	빈도	13	14	22	11		60
	연령 중 %	21.7%	23.3%	36.7%	18.3%		100.0%
	전체 %	7.1%	7.7%	12.0%	6.0%		32.8%
한국 전체	빈도	23	45	52	62		183
	연령 중 %	12.6%	24.6%	28.4%	33.9%		100.0%
	전체 %	12.6%	24.6%	28.4%	33.9%		100.0%

Pearson 카이제곱 20.768**

** p<.01

4.5.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의 교차분석

몽골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의 교차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영양크림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20대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40대 경우에는 모두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9> 기초 화장품 사용

구분		어떤 기초 화장품							합계
		로션	에센스	영양 크림	아이 크림	자외선 차단제	모두	사용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36	28	51	12	31	7	3	69
	연령 중 %	52.2%	40.6%	73.9%	17.4%	44.9%	10.1%	4.3%	
	전체 %	19.7%	15.3%	27.9%	6.6%	16.9%	3.8%	1.6%	37.7%
30-39 세	빈도	28	19	43	22	25	16	3	69
	연령 중 %	40.6%	27.5%	62.3%	31.9%	36.2%	23.2%	4.3%	
	전체 %	15.3%	10.4%	23.5%	12.0%	13.7%	8.7%	1.6%	37.7%
40-49 세	빈도	14	10	26	11	14	9	5	45
	연령 중 %	31.1%	22.2%	57.8%	24.4%	31.1%	20.0%	11.1%	
	전체 %	7.7%	5.5%	14.2%	6.0%	7.7%	4.9%	2.7%	24.6%
몽골 전체	빈도	78	57	120	45	70	32	11	183
	전체 %	16.5%	60.4%	15.4%			6.6%	1.1%	100.0%
20-29 세	빈도	35	30	21	6	38	24	2	69
	연령 중 %	50.7%	43.5%	30.4%	8.7%	55.1%	34.8%	2.9%	
	전체 %	19.1%	16.4%	11.5%	3.3%	20.8%	13.1%	1.1%	37.7%
30-39 세	빈도	24	18	16	6	22	30	0	54
	연령 중 %	44.4%	33.3%	29.6%	11.1%	40.7%	55.6%	.0%	
	전체 %	13.1%	9.8%	8.7%	3.3%	12.0%	16.4%	.0%	29.5%
40-49 세	빈도	16	13	22	7	16	36	1	60
	연령 중 %	26.7%	21.7%	36.7%	11.7%	26.7%	60.0%	1.7%	
	전체 %	8.7%	7.1%	12.0%	3.8%	8.7%	19.7%	.5%	32.8%
한국 전체	빈도	75	61	59	19	76	90	3	183
	전체 %	41.0%	33.3%	32.2%	10.4%	41.5%	49.2%	1.6%	100.0%

4.5.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교차분석

몽골여성 20대의 경우에는 보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의 경우에는 주름개선, 보습의 비율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주름개선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 기능성 화장품 사용

구분		어떤 기능성 화장품					합계
		주름 개선	보습	미백	모두 사용	사용안함	
20-29 세	빈도	8	26	17	0	21	69
	연령 중 %	11.6%	37.7%	24.6%	.0%	30.4%	
	전체 %	4.4%	14.2%	9.3%	.0%	11.5%	37.7%
30-39 세	빈도	20	20	15	3	14	69
	연령 중 %	29.0%	29.0%	21.7%	4.3%	20.3%	
	전체 %	10.9%	10.9%	8.2%	1.6%	7.7%	37.7%
40-49 세	빈도	16	14	3	1	14	45
	연령 중 %	35.6%	31.1%	6.7%	2.2%	31.1%	
	전체 %	8.7%	7.7%	1.6%	.5%	7.7%	24.6%
몽골 전체	빈도	44	60	35	4	49	183
	전체 %	16.5%	60.4%	15.4%	6.6%	1.1%	100.0%
20-29 세	빈도	4	43	16	10	6	68
	연령 중 %	5.9%	63.2%	23.5%	14.7%	8.8%	
	전체 %	2.2%	23.6%	8.8%	5.5%	3.3%	37.4%
30-39 세	빈도	17	32	8	4	2	54
	연령 중 %	31.5%	59.3%	14.8%	7.4%	3.7%	
	전체 %	9.3%	17.6%	4.4%	2.2%	1.1%	29.7%
40-49 세	빈도	19	22	14	9	6	60
	연령 중 %	31.7%	36.7%	23.3%	15.0%	10.0%	
	전체 %	10.4%	12.1%	7.7%	4.9%	3.3%	33.0%
한국 전체	빈도	40	97	38	23	14	182
	전체 %	22.0%	53.3%	20.9%	12.6%	7.7%	100.0%

4.5.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로션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로션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 여성의 연령과 로션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로션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아침저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로션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로션을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1> 로션 사용하는 반복

구분		로션 사용하는 반복					전체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끔	사용하지 않음	
20-29 세	빈도	11	7	7	19	25	69
	연령 중 %	15.9%	10.1%	10.1%	27.5%	36.2%	100.0%
	전체 %	6.0%	3.8%	3.8%	10.4%	13.7%	37.7%
30-39 세	빈도	15	12	10	9	23	69
	연령 중 %	21.7%	17.4%	14.5%	13.0%	33.3%	100.0%
	전체 %	8.2%	6.6%	5.5%	4.9%	12.6%	37.7%
40-49 세	빈도	3	7	1	13	21	45
	연령 중 %	6.7%	15.6%	2.2%	28.9%	46.7%	100.0%
	전체 %	1.6%	3.8%	.5%	7.1%	11.5%	24.6%
몽골 전체	빈도	29	26	18	41	69	183
	연령 중 %	15.8%	14.2%	9.8%	22.4%	37.7%	100.0%
	전체 %	15.8%	14.2%	9.8%	22.4%	37.7%	100.0%

Pearson 카이제곱 15.139

20-29 세	빈도	51	7	0	1	10	69
	연령 중 %	73.9%	10.1%	.0%	1.4%	14.5%	100.0%
	전체 %	27.9%	3.8%	.0%	.5%	5.5%	37.7%
30-39 세	빈도	43	8	2	1	0	54
	연령 중 %	79.6%	14.8%	3.7%	1.9%	.0%	100.0%
	전체 %	23.5%	4.4%	1.1%	.5%	.0%	29.5%
40-49 세	빈도	41	5	6	2	6	60
	연령 중 %	68.3%	8.3%	10.0%	3.3%	10.0%	100.0%
	전체 %	22.4%	2.7%	3.3%	1.1%	3.3%	32.8%
한국 전체	빈도	135	20	8	4	16	183
	연령 중 %	73.8%	10.9%	4.4%	2.2%	8.7%	100.0%
	전체 %	73.8%	10.9%	4.4%	2.2%	8.7%	100.0%

Pearson 카이제곱 17.065*

* $p < .05$

4.5.7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에센스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에센스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 여성의 연령대와 에센스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에센스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아침저녁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한국인의 연령대와 에센스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 에센스를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 여성의 경우는 매일 아침저녁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2> 에센스 사용하는 반복

구분	에센스 사용하는 반복					전체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끔	사용하지 않음	
빈도	9	7	1	17	35	69
20-29세 연령 중 %	13.0%	10.1%	1.4%	24.6%	50.7%	100.0%
전체 %	4.9%	3.8%	.5%	9.3%	19.1%	37.7%
빈도	9	10	3	14	33	69
30-39세 연령 중 %	13.0%	14.5%	4.3%	20.3%	47.8%	100.0%
전체 %	4.9%	5.5%	1.6%	7.7%	18.0%	37.7%
빈도	4	7	0	10	24	45
40-49세 연령 중 %	8.9%	15.6%	.0%	22.2%	53.3%	100.0%
전체 %	2.2%	3.8%	.0%	5.5%	13.1%	24.6%
빈도	22	24	4	41	92	183
몽골 전체 연령 중 %	12.0%	13.1%	2.2%	22.4%	50.3%	100.0%
전체 %	12.0%	13.1%	2.2%	22.4%	50.3%	100.0%

Pearson 카이제곱 4.347

빈도	39	3	9	5	13	69
20-29세 연령 중 %	56.5%	4.3%	13.0%	7.2%	18.8%	100.0%
전체 %	21.3%	1.6%	4.9%	2.7%	7.1%	37.7%
빈도	34	7	3	3	7	54
30-39세 연령 중 %	63.0%	13.0%	5.6%	5.6%	13.0%	100.0%
전체 %	18.6%	3.8%	1.6%	1.6%	3.8%	29.5%
빈도	39	6	4	1	9	60
40-49세 연령 중 %	65.0%	10.0%	6.7%	1.7%	15.0%	100.0%
전체 %	21.3%	3.3%	2.2%	.5%	4.9%	32.8%
빈도	112	16	16	9	29	183
한국 전체 연령 중 %	61.2%	8.7%	8.7%	4.9%	15.8%	100.0%
전체 %	61.2%	8.7%	8.7%	4.9%	15.8%	100.0%

Pearson 카이제곱 10.377

4.5.8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영양크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영양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몽골 여성의 연령대와 영양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영양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아침저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영양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영양크림을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3> 영양크림 사용하는 반복

구분		영양크림 사용하는 반복					전체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끔	사용하지 않음	
20-29 세	빈도	12	9	14	25	9	69
	연령 중 %	17.4%	13.0%	20.3%	36.2%	13.0%	100.0%
	전체 %	6.6%	4.9%	7.7%	13.7%	4.9%	37.7%
30-39 세	빈도	18	12	12	19	8	69
	연령 중 %	26.1%	17.4%	17.4%	27.5%	11.6%	100.0%
	전체 %	9.8%	6.6%	6.6%	10.4%	4.4%	37.7%
40-49 세	빈도	10	7	8	11	9	45
	연령 중 %	22.2%	15.6%	17.8%	24.4%	20.0%	100.0%
	전체 %	5.5%	3.8%	4.4%	6.0%	4.9%	24.6%
몽골 전체	빈도	40	28	34	55	26	183
	연령 중 %	21.9%	15.3%	18.6%	30.1%	14.2%	100.0%
	전체 %	21.9%	15.3%	18.6%	30.1%	14.2%	100.0%

Pearson 카이제곱 4.756

20-29 세	빈도	25	3	16	3	22	69
	연령 중 %	36.2%	4.3%	23.2%	4.3%	31.9%	100.0%
	전체 %	13.7%	1.6%	8.7%	1.6%	12.0%	37.7%
30-39 세	빈도	25	6	10	5	8	54
	연령 중 %	46.3%	11.1%	18.5%	9.3%	14.8%	100.0%
	전체 %	13.7%	3.3%	5.5%	2.7%	4.4%	29.5%
40-49 세	빈도	38	1	18	1	2	60
	연령 중 %	63.3%	1.7%	30.0%	1.7%	3.3%	100.0%
	전체 %	20.8%	.5%	9.8%	.5%	1.1%	32.8%
한국 전체	빈도	88	10	44	9	32	183
	연령 중 %	48.1%	5.5%	24.0%	4.9%	17.5%	100.0%
	전체 %	48.1%	5.5%	24.0%	4.9%	17.5%	100.0%

Pearson 카이제곱 30.115***

*** p<.001

4.5.9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아이크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40대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아이크림을 언제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크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20대는 사용하지 않으며, 30~40대는 매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표 24> 아이크림 사용하는 반복

구분		아이크림 사용하는 반복					전체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끔	사용하지 않음	
20-29 세	빈도	3	4	6	7	49	69
	연령 중 %	4.3%	5.8%	8.7%	10.1%	71.0%	100.0%
	전체 %	1.6%	2.2%	3.3%	3.8%	26.8%	37.7%
30-39 세	빈도	8	9	8	16	28	69
	연령 중 %	11.6%	13.0%	11.6%	23.2%	40.6%	100.0%
	전체 %	4.4%	4.9%	4.4%	8.7%	15.3%	37.7%
40-49 세	빈도	4	4	2	11	24	45
	연령 중 %	8.9%	8.9%	4.4%	24.4%	53.3%	100.0%
	전체 %	2.2%	2.2%	1.1%	6.0%	13.1%	24.6%
몽골 전체	빈도	15	17	16	34	101	183
	연령 중 %	8.2%	9.3%	8.7%	18.6%	55.2%	100.0%
	전체 %	8.2%	9.3%	8.7%	18.6%	55.2%	100.0%

Pearson 카이제곱 15.890*

20-29 세	빈도	13	4	8	4	40	69
	연령 중 %	18.8%	5.8%	11.6%	5.8%	58.0%	100.0%
	전체 %	7.1%	2.2%	4.4%	2.2%	21.9%	37.7%
30-39 세	빈도	21	4	6	3	20	54
	연령 중 %	38.9%	7.4%	11.1%	5.6%	37.0%	100.0%
	전체 %	11.5%	2.2%	3.3%	1.6%	10.9%	29.5%
40-49 세	빈도	27	1	13	3	15	60
	연령 중 %	45.0%	1.7%	21.7%	5.0%	25.0%	100.0%
	전체 %	14.8%	.5%	7.1%	1.6%	8.2%	32.8%
한국 전체	빈도	61	9	27	10	75	183
	연령 중 %	33.3%	4.9%	14.8%	5.5%	41.0%	100.0%
	전체 %	33.3%	4.9%	14.8%	5.5%	41.0%	100.0%

Pearson 카이제곱 23.165*

*p<.05

4.5.10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차단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30대의 경우에는 외출 시에만 바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모두에서 항상 바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자외선 차단제를 언제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20대와 40대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20대와 40대 경우에는 항상 바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외출 시에만 바른다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의 30대 경우에는 항상 바른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표 25>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반복

구분		차단제 사용하는 반복					전체
		항상	햇빛 많을 때만	봄 여름만	외출 시에만	사용하 지 않음	
20-29 세	빈도	1	14		23	31	69
	연령 중 %	1.4%	20.3%		33.3%	44.9%	100.0%
	전체 %	.5%	7.7%		12.6%	16.9%	37.7%
30-39 세	빈도	2	13		28	26	69
	연령 중 %	2.9%	18.8%		40.6%	37.7%	100.0%
	전체 %	1.1%	7.1%		15.3%	14.2%	37.7%
40-49 세	빈도	1	10		13	21	45
	연령 중 %	2.2%	22.2%		28.9%	46.7%	100.0%
	전체 %	.5%	5.5%		7.1%	11.5%	24.6%
몽골 전체	빈도	4	37		64	78	183
	연령 중 %	2.2%	20.2%		35.0%	42.6%	100.0%
	전체 %	2.2%	20.2%		35.0%	42.6%	100.0%

Pearson 카이제곱 2.290

20-29 세	빈도	33	9	2	20	5	69
	연령 중 %	47.8%	13.0%	2.9%	29.0%	7.2%	100.0%
	전체 %	18.0%	4.9%	1.1%	10.9%	2.7%	37.7%
30-39 세	빈도	26	10	3	12	3	54
	연령 중 %	48.1%	18.5%	5.6%	22.2%	5.6%	100.0%
	전체 %	14.2%	5.5%	1.6%	6.6%	1.6%	29.5%
40-49 세	빈도	27	14	3	8	8	60
	연령 중 %	45.0%	23.3%	5.0%	13.3%	13.3%	100.0%
	전체 %	14.8%	7.7%	1.6%	4.4%	4.4%	32.8%
한국 전체	빈도	86	33	8	40	16	183
	연령 중 %	47.0%	18.0%	4.4%	21.9%	8.7%	100.0%
	전체 %	47.0%	18.0%	4.4%	21.9%	8.7%	100.0%

Pearson 카이제곱 8.392

4.5.1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차단 바르는 시간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 연령대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차단제를 어떻게 바르는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아침에 한 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다는 반면 한국여성의 경우 아침에 한 번 바른다는 비율이 많았다.

<표 26>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바르는 반복

구분		차단제를 하루에 바르는 반복					전체
		아침 1번	2시간 마다	하루 2번	외출 시에만	사용하지 않음	
20-29 세	빈도	19		0	19	31	69
	연령 중 %	27.5%		.0%	27.5%	44.9%	100.0%
	전체 %	10.4%		.0%	10.4%	16.9%	37.7%
30-39 세	빈도	21		0	22	26	69
	연령 중 %	30.4%		.0%	31.9%	37.7%	100.0%
	전체 %	11.5%		.0%	12.0%	14.2%	37.7%
40-49 세	빈도	11		1	11	22	45
	연령 중 %	24.4%		2.2%	24.4%	48.9%	100.0%
	전체 %	6.0%		.5%	6.0%	12.0%	24.6%
몽골 전체	빈도	51		1	52	79	183
	연령 중 %	27.9%		.5%	28.4%	43.2%	100.0%
	전체 %	27.9%		.5%	28.4%	43.2%	100.0%

Pearson 카이제곱 4.854

20-29 세	빈도	30	2	8	25	4	69
	연령 중 %	43.5%	2.9%	11.6%	36.2%	5.8%	100.0%
	전체 %	16.5%	1.1%	4.4%	13.7%	2.2%	37.9%
30-39 세	빈도	28	5	4	13	3	53
	연령 중 %	52.8%	9.4%	7.5%	24.5%	5.7%	100.0%
	전체 %	15.4%	2.7%	2.2%	7.1%	1.6%	29.1%
40-49 세	빈도	32	3	7	10	8	60
	연령 중 %	53.3%	5.0%	11.7%	16.7%	13.3%	100.0%
	전체 %	17.6%	1.6%	3.8%	5.5%	4.4%	33.0%
한국 전체	빈도	90	10	19	48	15	182
	연령 중 %	49.5%	5.5%	10.4%	26.4%	8.2%	100.0%
	전체 %	49.5%	5.5%	10.4%	26.4%	8.2%	100.0%

Pearson 카이제곱 11.343

4.6 안면 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에 대한 분석

4.6.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물 섭취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하루 물 섭취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에는 2~4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는 2~4잔, 5~6잔의 경우가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하루 물 섭취량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하루 물 섭취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에는 2~4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5~6잔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하루 물 섭취량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20~30대는 물을 하루에 2~4잔을 섭취하는 반면에 40대는 4~5잔을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7> 하루에 물 섭취량

구분		물 섭취량				전체
		2-4잔	5-6잔	7-8잔	9잔 이상	
20-29세	빈도	32	25	6	4	67
	연령 중 %	47.8%	37.3%	9.0%	6.0%	100.0%
	전체 %	17.7%	13.8%	3.3%	2.2%	37.0%
30-39세	빈도	30	26	10	3	69
	연령 중 %	43.5%	37.7%	14.5%	4.3%	100.0%
	전체 %	16.6%	14.4%	5.5%	1.7%	38.1%
40-49세	빈도	14	14	11	6	45
	연령 중 %	31.1%	31.1%	24.4%	13.3%	100.0%
	전체 %	7.7%	7.7%	6.1%	3.3%	24.9%
몽골전체	빈도	76	65	27	13	181
	연령 중 %	42.0%	35.9%	14.9%	7.2%	100.0%
	전체 %	42.0%	35.9%	14.9%	7.2%	100.0%

Pearson 카이제곱 9.844

20-29세	빈도	29	18	14	8	69
	연령 중 %	42.0%	26.1%	20.3%	11.6%	100.0%
	전체 %	15.8%	9.8%	7.7%	4.4%	37.7%
30-39세	빈도	23	18	9	4	54
	연령 중 %	42.6%	33.3%	16.7%	7.4%	100.0%
	전체 %	12.6%	9.8%	4.9%	2.2%	29.5%
40-49세	빈도	15	20	16	9	60
	연령 중 %	25.0%	33.3%	26.7%	15.0%	100.0%
	전체 %	8.2%	10.9%	8.7%	4.9%	32.8%
한국전체	빈도	67	56	39	21	183
	연령 중 %	36.6%	30.6%	21.3%	11.5%	100.0%
	전체 %	36.6%	30.6%	21.3%	11.5%	100.0%

Pearson 카이제곱 6.845

4.6.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커피 섭취량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하루 커피 섭취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 마시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1잔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의 경우 1잔과 마시지 않다는 비율이 동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커피를 얼마나 섭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하루 커피 섭취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 마시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 2~3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하루 커피 섭취량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 30~40대가 커피를 마시지 않다는 반면에 한국여성 30~40대는 하루에 2~3잔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8> 하루의 커피 섭취량

구분		커피 섭취량				전체
		1잔	2-3잔	4잔 이상	마시지 않다	
20-29세	빈도	19	7	6	37	69
	연령 중 %	27.5%	10.1%	8.7%	53.6%	100.0%
	전체 %	10.4%	3.8%	3.3%	20.2%	37.7%
30-39세	빈도	27	20	3	19	69
	연령 중 %	39.1%	29.0%	4.3%	27.5%	100.0%
	전체 %	14.8%	10.9%	1.6%	10.4%	37.7%
40-49세	빈도	16	12	1	16	45
	연령 중 %	35.6%	26.7%	2.2%	35.6%	100.0%
	전체 %	8.7%	6.6%	.5%	8.7%	24.6%
몽골 전체	빈도	62	39	10	72	183
	연령 중 %	33.9%	21.3%	5.5%	39.3%	100.0%
	전체 %	33.9%	21.3%	5.5%	39.3%	100.0%
Pearson 카이제곱 16.494*						
20-29세	빈도	19	16	7	27	69
	연령 중 %	27.5%	23.2%	10.1%	39.1%	100.0%
	전체 %	10.4%	8.7%	3.8%	14.8%	37.7%
30-39세	빈도	14	26	3	11	54
	연령 중 %	25.9%	48.1%	5.6%	20.4%	100.0%
	전체 %	7.7%	14.2%	1.6%	6.0%	29.5%
40-49세	빈도	11	31	9	9	60
	연령 중 %	18.3%	51.7%	15.0%	15.0%	100.0%
	전체 %	6.0%	16.9%	4.9%	4.9%	32.8%
한국 전체	빈도	44	73	19	47	183
	연령 중 %	24.0%	39.9%	10.4%	25.7%	100.0%
	전체 %	24.0%	39.9%	10.4%	25.7%	100.0%
Pearson 카이제곱 19.643**						

* $p < .05$, ** $p < .01$

4.6.3 몽골과 한국여성의 좋아하는 맛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좋아하는 맛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단맛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좋아하는 맛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좋아하는 맛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단맛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매운맛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좋아하는 맛과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 40대가 단 맛을 좋아한다는 반면에 한국여성 40대가 매운 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9> 좋아하는 맛

구분		좋아하는 맛						전체
		짭 맛	쓴 맛	단 맛	매운맛	고소한 맛	기타	
20-29 세	빈도	2	18	28	13	8	0	69
	연령 중 %	2.9%	26.1%	40.6%	18.8%	11.6%	.0%	100.0%
	전체 %	1.1%	9.9%	15.4%	7.1%	4.4%	.0%	37.9%
30-39 세	빈도	5	15	31	6	12	0	69
	연령 중 %	7.2%	21.7%	44.9%	8.7%	17.4%	.0%	100.0%
	전체 %	2.7%	8.2%	17.0%	3.3%	6.6%	.0%	37.9%
40-49 세	빈도	3	8	14	6	12	1	44
	연령 중 %	6.8%	18.2%	31.8%	13.6%	27.3%	2.3%	100.0%
	전체 %	1.6%	4.4%	7.7%	3.3%	6.6%	.5%	24.2%
몽골 전체	빈도	10	41	73	25	32	1	182
	연령 중 %	5.5%	22.5%	40.1%	13.7%	17.6%	.5%	100.0%
	전체 %	5.5%	22.5%	40.1%	13.7%	17.6%	.5%	100.0%

Pearson 카이제곱 12.786

20-29 세	빈도	6	4	28	20	7		67
	연령 중 %	9.0%	6.0%	41.8%	29.9%	10.4%		100.0%
	전체 %	3.4%	2.2%	15.7%	11.2%	3.9%		37.6%
30-39 세	빈도	6	7	21	14	3		51
	연령 중 %	11.8%	13.7%	41.2%	27.5%	5.9%		100.0%
	전체 %	3.4%	3.9%	11.8%	7.9%	1.7%		28.7%
40-49 세	빈도	5	1	16	24	13		60
	연령 중 %	8.3%	1.7%	26.7%	40.0%	21.7%		100.0%
	전체 %	2.8%	.6%	9.0%	13.5%	7.3%		33.7%
한국전 체	빈도	17	12	65	58	23		178
	연령 중 %	9.6%	6.7%	36.5%	32.6%	12.9%		100.0%
	전체 %	9.6%	6.7%	36.5%	32.6%	12.9%		100.0%

Pearson 카이제곱 17.763

4.6.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즐겨 먹는 식품의 교차분석

몽골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육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20~30대의 경우에는 육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채소와 육류의 비율이 동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0> 즐겨 먹는 식품

구분		즐거 먹는 식품							합계
		채소	육류	해조류	유제품	곡물류	과일	골고루	
20-29세	빈도	8	49	2	7	13	2	14	69
	연령 중 %	11.6%	71.0%	2.9%	10.1%	18.8%	2.9%	20.3%	
	전체 %	4.4%	26.8%	1.1%	3.8%	7.1%	1.1%	7.7%	37.7%
30-39세	빈도	14	44	1	4	17	6	14	69
	연령 중 %	20.3%	63.8%	1.4%	5.8%	24.6%	8.7%	20.3%	
	전체 %	7.7%	24.0%	.5%	2.2%	9.3%	3.3%	7.7%	37.7%
40-49세	빈도	8	35	1	6	6	4	5	45
	연령 중 %	17.8%	77.8%	2.2%	13.3%	13.3%	8.9%	11.1%	
	전체 %	4.4%	19.1%	.5%	3.3%	3.3%	2.2%	2.7%	24.6%
몽골 전체	빈도	30	128	4	17	36	12	33	183
	전체 %	16.4%	69.9%	2.2%	9.3%	19.7%	6.6%	18.0%	100.0%
20-29세	빈도	14	37	12	21	6	19	11	68
	연령 중 %	20.6%	54.4%	17.6%	30.9%	8.8%	27.9%	16.2%	
	전체 %	7.7%	20.4%	6.6%	11.6%	3.3%	10.5%	6.1%	37.6%
30-39세	빈도	10	18	10	9	2	12	11	53
	연령 중 %	18.9%	34.0%	18.9%	17.0%	3.8%	22.6%	20.8%	
	전체 %	5.5%	9.9%	5.5%	5.0%	1.1%	6.6%	6.1%	29.3%
40-49세	빈도	19	19	16	3	8	11	8	60
	연령 중 %	31.7%	31.7%	26.7%	5.0%	13.3%	18.3%	13.3%	
	전체 %	10.5%	10.5%	8.8%	1.7%	4.4%	6.1%	4.4%	33.1%
한국 전체	빈도	43	74	38	33	16	42	30	181
	전체 %	23.8%	40.9%	21.0%	18.2%	8.8%	23.2%	16.6%	100.0%

4.6.5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가끔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거의 안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 경우 자주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 가끔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통계적으로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20~30대의 경우에는 인스턴트식품을 가끔 먹는 연령대, 40대는 거의 안 먹는 연령대로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의 경우는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 연령대, 30~40대는 가끔 먹는 연령대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

<표 31> 인스턴트식품 섭취

구분		인스턴트식품 섭취					전체
		매일	자주 먹는다	가끔 먹는다	거의 안 먹는다	전혀 먹지 않는다	
20-29 세	빈도	3	11	42	10	3	69
	연령 중 %	4.3%	15.9%	60.9%	14.5%	4.3%	100.0%
	전체 %	1.6%	6.0%	23.0%	5.5%	1.6%	37.7%
30-39 세	빈도	0	3	40	23	3	69
	연령 중 %	.0%	4.3%	58.0%	33.3%	4.3%	100.0%
	전체 %	.0%	1.6%	21.9%	12.6%	1.6%	37.7%
40-49 세	빈도	0	2	16	19	8	45
	연령 중 %	.0%	4.4%	35.6%	42.2%	17.8%	100.0%
	전체 %	.0%	1.1%	8.7%	10.4%	4.4%	24.6%
몽골 전체	빈도	3	16	98	52	14	183
	연령 중 %	1.6%	8.7%	53.6%	28.4%	7.7%	100.0%
	전체 %	1.6%	8.7%	53.6%	28.4%	7.7%	100.0%

Pearson 카이제곱 31.499***

20-29 세	빈도	3	32	27	6	1	69
	연령 중 %	4.3%	46.4%	39.1%	8.7%	1.4%	100.0%
	전체 %	1.6%	17.5%	14.8%	3.3%	.5%	37.7%
30-39 세	빈도	3	12	28	11	0	54
	연령 중 %	5.6%	22.2%	51.9%	20.4%	.0%	100.0%
	전체 %	1.6%	6.6%	15.3%	6.0%	.0%	29.5%
40-49 세	빈도	0	6	29	23	2	60
	연령 중 %	.0%	10.0%	48.3%	38.3%	3.3%	100.0%
	전체 %	.0%	3.3%	15.8%	12.6%	1.1%	32.8%
한국 전체	빈도	6	50	84	40	3	183
	연령 중 %	3.3%	27.3%	45.9%	21.9%	1.6%	100.0%
	전체 %	3.3%	27.3%	45.9%	21.9%	1.6%	100.0%

Pearson 카이제곱 35.442***

***p<.001

4.6.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건강식품 섭취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건강식품 섭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거의 안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전혀 먹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건강식품 섭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건강식품 섭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가끔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거의 안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건강식품 섭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하면 건강식품 섭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 건강식품 섭취

구분		건강식품 섭취					전체
		매일	자주 먹는다	가끔 먹는다	거의 안 먹는다	전혀 먹지 않는다	
20-29세	빈도	1	1	16	28	23	69
	연령 중 %	1.4%	1.4%	23.2%	40.6%	33.3%	100.0%
	전체 %	.5%	.5%	8.7%	15.3%	12.6%	37.7%
30-39세	빈도	3	2	18	27	19	69
	연령 중 %	4.3%	2.9%	26.1%	39.1%	27.5%	100.0%
	전체 %	1.6%	1.1%	9.8%	14.8%	10.4%	37.7%
40-49세	빈도	2	2	9	12	20	45
	연령 중 %	4.4%	4.4%	20.0%	26.7%	44.4%	100.0%
	전체 %	1.1%	1.1%	4.9%	6.6%	10.9%	24.6%
몽골 전체	빈도	6	5	43	67	62	183
	연령 중 %	3.3%	2.7%	23.5%	36.6%	33.9%	100.0%
	전체 %	3.3%	2.7%	23.5%	36.6%	33.9%	100.0%

Pearson 카이제곱 6.411

20-29세	빈도	8	9	26	21	5	69
	연령 중 %	11.6%	13.0%	37.7%	30.4%	7.2%	100.0%
	전체 %	4.4%	4.9%	14.2%	11.5%	2.7%	37.7%
30-39세	빈도	1	9	26	13	5	54
	연령 중 %	1.9%	16.7%	48.1%	24.1%	9.3%	100.0%
	전체 %	.5%	4.9%	14.2%	7.1%	2.7%	29.5%
40-49세	빈도	13	8	16	19	4	60
	연령 중 %	21.7%	13.3%	26.7%	31.7%	6.7%	100.0%
	전체 %	7.1%	4.4%	8.7%	10.4%	2.2%	32.8%
한국 전체	빈도	22	26	68	53	14	183
	연령 중 %	12.0%	14.2%	37.2%	29.0%	7.7%	100.0%
	전체 %	12.0%	14.2%	37.2%	29.0%	7.7%	100.0%

Pearson 카이제곱 14.087

4.7 음주와 흡연 여부에 대한 분석

4.7.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음주 여부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음주 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40대의 경우 한 달에 1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음주 여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음주 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에는 한 달에 1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 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음주 여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 40대는 한 달에 1번 씩 음주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여성 40대의 경우에는 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33> 음주 여부

구분		음주 여부					전체
		일주일 1번	일주일 2-3번	한달 1번	하지 않다	기타	
20-29 세	빈도	8	1	35	25	0	69
	연령 중 %	11.6%	1.4%	50.7%	36.2%	.0%	100.0%
	전체 %	4.4%	.5%	19.1%	13.7%	.0%	37.7%
30-39 세	빈도	3	2	25	38	1	69
	연령 중 %	4.3%	2.9%	36.2%	55.1%	1.4%	100.0%
	전체 %	1.6%	1.1%	13.7%	20.8%	.5%	37.7%
40-49 세	빈도	1	0	23	21	0	45
	연령 중 %	2.2%	.0%	51.1%	46.7%	.0%	100.0%
	전체 %	.5%	.0%	12.6%	11.5%	.0%	24.6%
몽골 전체	빈도	12	3	83	84	1	183
	연령 중 %	6.6%	1.6%	45.4%	45.9%	.5%	100.0%
	전체 %	6.6%	1.6%	45.4%	45.9%	.5%	100.0%

Pearson 카이제곱 12.255

20-29 세	빈도	11	12	25	20	1	69
	연령 중 %	15.9%	17.4%	36.2%	29.0%	1.4%	100.0%
	전체 %	6.0%	6.6%	13.7%	10.9%	.5%	37.7%
30-39 세	빈도	8	12	13	20	1	54
	연령 중 %	14.8%	22.2%	24.1%	37.0%	1.9%	100.0%
	전체 %	4.4%	6.6%	7.1%	10.9%	.5%	29.5%
40-49 세	빈도	5	16	13	26	0	60
	연령 중 %	8.3%	26.7%	21.7%	43.3%	.0%	100.0%
	전체 %	2.7%	8.7%	7.1%	14.2%	.0%	32.8%
한국 전체	빈도	24	40	51	66	2	183
	연령 중 %	13.1%	21.9%	27.9%	36.1%	1.1%	100.0%
	전체 %	13.1%	21.9%	27.9%	36.1%	1.1%	100.0%

Pearson 카이제곱 8.565

몽골여성의 연령과 음주를 한다면 음주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40대의 경우 반병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반병미만과 반병~1병의 비율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음주의 양과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음주를 한다면 음주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1병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반병~1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음주량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4> 음주량

구분		음주량					전체
		한잔	반병 미만	반병-1 병	1병 이상	기타	
20-29 세	빈도	9	22	11	4	0	46
	연령 중 %	19.6%	47.8%	23.9%	8.7%	.0%	100.0%
	전체 %	8.8%	21.6%	10.8%	3.9%	.0%	45.1%
30-39 세	빈도	5	11	11	3	1	31
	연령 중 %	16.1%	35.5%	35.5%	9.7%	3.2%	100.0%
	전체 %	4.9%	10.8%	10.8%	2.9%	1.0%	30.4%
40-49 세	빈도	6	11	6	2	0	25
	연령 중 %	24.0%	44.0%	24.0%	8.0%	.0%	100.0%
	전체 %	5.9%	10.8%	5.9%	2.0%	.0%	24.5%
몽골 전체	빈도	20	44	28	9	1	102
	연령 중 %	19.6%	43.1%	27.5%	8.8%	1.0%	100.0%
	전체 %	19.6%	43.1%	27.5%	8.8%	1.0%	100.0%

Pearson 카이제곱 4.480

20-29 세	빈도	4	13	16	17		50
	연령 중 %	8.0%	26.0%	32.0%	34.0%		100.0%
	전체 %	3.4%	10.9%	13.4%	14.3%		42.0%
30-39 세	빈도	4	6	7	17		34
	연령 중 %	11.8%	17.6%	20.6%	50.0%		100.0%
	전체 %	3.4%	5.0%	5.9%	14.3%		28.6%
40-49 세	빈도	3	9	12	11		35
	연령 중 %	8.6%	25.7%	34.3%	31.4%		100.0%
	전체 %	2.5%	7.6%	10.1%	9.2%		29.4%
한국 전체	빈도	11	28	35	45		119
	연령 중 %	9.2%	23.5%	29.4%	37.8%		100.0%
	전체 %	9.2%	23.5%	29.4%	37.8%		100.0%

Pearson 카이제곱 4.480

4.7.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흡연 여부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흡연 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흡연 여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흡연 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흡연 여부의 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 모든 연령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5> 흡연량

구분		흡연량				전체
		반갑 이하	1갑	한갑 이상	흡연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7	2	1	59	69
	연령 중 %	10.1%	2.9%	1.4%	85.5%	100.0%
	전체 %	3.8%	1.1%	.5%	32.2%	37.7%
30-39 세	빈도	6	2	0	61	69
	연령 중 %	8.7%	2.9%	.0%	88.4%	100.0%
	전체 %	3.3%	1.1%	.0%	33.3%	37.7%
40-49 세	빈도	2	2	0	41	45
	연령 중 %	4.4%	4.4%	.0%	91.1%	100.0%
	전체 %	1.1%	1.1%	.0%	22.4%	24.6%
몽골 전체	빈도	15	6	1	161	183
	연령 중 %	8.2%	3.3%	.5%	88.0%	100.0%
	전체 %	8.2%	3.3%	.5%	88.0%	100.0%

Pearson 카이제곱 3.112

20-29 세	빈도	9	1	0	59	69
	연령 중 %	13.0%	1.4%	.0%	85.5%	100.0%
	전체 %	4.9%	.5%	.0%	32.2%	37.7%
30-39 세	빈도	4	2	2	46	54
	연령 중 %	7.4%	3.7%	3.7%	85.2%	100.0%
	전체 %	2.2%	1.1%	1.1%	25.1%	29.5%
40-49 세	빈도	3	0	0	57	60
	연령 중 %	5.0%	.0%	.0%	95.0%	100.0%
	전체 %	1.6%	.0%	.0%	31.1%	32.8%
한국 전체	빈도	16	3	2	162	183
	연령 중 %	8.7%	1.6%	1.1%	88.5%	100.0%
	전체 %	8.7%	1.6%	1.1%	88.5%	100.0%

Pearson 카이제곱 10.135

몽골여성의 연령과 흡연을 한다면 얼마동안 하고 있는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5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흡연을 얼마동안 하고 있는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흡연을 한다면 얼마동안 하고 있는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의 경우에는 2년~4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흡연을 얼마동안 하고 있는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6> 흡연 하고 있는 시간

구분		흡연 얼마 동안					전체
		6개월 미만	6개월-1년	2년	2년-4년	5년 이상	
20-29세	빈도	1	0	3	2	4	10
	연령 중 %	10.0%	.0%	30.0%	20.0%	40.0%	100.0%
	전체 %	4.3%	.0%	13.0%	8.7%	17.4%	43.5%
30-39세	빈도	1	1	1	1	5	9
	연령 중 %	11.1%	11.1%	11.1%	11.1%	55.6%	100.0%
	전체 %	4.3%	4.3%	4.3%	4.3%	21.7%	39.1%
40-49세	빈도	0	0	0	1	3	4
	연령 중 %	.0%	.0%	.0%	25.0%	75.0%	100.0%
	전체 %	.0%	.0%	.0%	4.3%	13.0%	17.4%
몽골 전체	빈도	2	1	4	4	12	23
	연령 중 %	8.7%	4.3%	17.4%	17.4%	52.2%	100.0%
	전체 %	8.7%	4.3%	17.4%	17.4%	52.2%	100.0%

Pearson 카이제곱 4.877

20-29세	빈도	2	0	1	3	3	9
	연령 중 %	22.2%	.0%	11.1%	33.3%	33.3%	100.0%
	전체 %	9.5%	.0%	4.8%	14.3%	14.3%	42.9%
30-39세	빈도	3	1	1	0	4	9
	연령 중 %	33.3%	11.1%	11.1%	.0%	44.4%	100.0%
	전체 %	14.3%	4.8%	4.8%	.0%	19.0%	42.9%
40-49세	빈도	0	1	0	2	0	3
	연령 중 %	.0%	33.3%	.0%	66.7%	.0%	100.0%
	전체 %	.0%	4.8%	.0%	9.5%	.0%	14.3%
한국 전체	빈도	5	2	2	5	7	21
	연령 중 %	23.8%	9.5%	9.5%	23.8%	33.3%	100.0%
	전체 %	23.8%	9.5%	9.5%	23.8%	33.3%	100.0%

Pearson 카이제곱 10.200

4.8 피부상태에 미치는 생활습관 수면, 운동, 환경에 대한 분석

4.8.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시간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6~8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 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6~8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시간과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수면평균시간이 보통 6~8 시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7> 평균수면 시간

구분		평균수면 시간				전체
		4시간 미만	4-6시간	6-8시간	8시간 이상	
20-29세	빈도	3	9	44	13	69
	연령 중 %	4.3%	13.0%	63.8%	18.8%	100.0%
	전체 %	1.6%	4.9%	24.0%	7.1%	37.7%
30-39세	빈도	2	12	40	15	69
	연령 중 %	2.9%	17.4%	58.0%	21.7%	100.0%
	전체 %	1.1%	6.6%	21.9%	8.2%	37.7%
40-49세	빈도	3	4	30	8	45
	연령 중 %	6.7%	8.9%	66.7%	17.8%	100.0%
	전체 %	1.6%	2.2%	16.4%	4.4%	24.6%
몽골 전체	빈도	8	25	114	36	183
	연령 중 %	4.4%	13.7%	62.3%	19.7%	100.0%
	전체 %	4.4%	13.7%	62.3%	19.7%	100.0%

Pearson 카이제곱 2.982

20-29세	빈도	5	22	37	4	69
	연령 중 %	7.2%	31.9%	53.6%	5.8%	100.0%
	전체 %	2.7%	12.0%	20.2%	2.2%	37.7%
30-39세	빈도	2	10	38	4	54
	연령 중 %	3.7%	18.5%	70.4%	7.4%	100.0%
	전체 %	1.1%	5.5%	20.8%	2.2%	29.5%
40-49세	빈도	0	14	40	6	60
	연령 중 %	.0%	23.3%	66.7%	10.0%	100.0%
	전체 %	.0%	7.7%	21.9%	3.3%	32.8%
한국 전체	빈도	7	46	115	14	183
	연령 중 %	3.8%	25.1%	62.8%	7.7%	100.0%
	전체 %	3.8%	25.1%	62.8%	7.7%	100.0%

Pearson 카이제곱 10.636

4.8.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수면방향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수면방향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바뀌면서 수면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수면방향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수면방향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바뀌면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옆으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수면방향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40대 경우에는 바뀌면서 수면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면, 한국여성 40대 경우에는 옆으로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8> 수면방향

구분		수면방향					전체
		위로	옆으로	바뀌면서	모두	잘 모르겠다	
20-29세	빈도	1	26	37	5		69
	연령 중 %	1.4%	37.7%	53.6%	7.2%		100.0%
	전체 %	.5%	14.2%	20.2%	2.7%		37.7%
30-39세	빈도	4	26	35	4		69
	연령 중 %	5.8%	37.7%	50.7%	5.8%		100.0%
	전체 %	2.2%	14.2%	19.1%	2.2%		37.7%
40-49세	빈도	3	15	23	4		45
	연령 중 %	6.7%	33.3%	51.1%	8.9%		100.0%
	전체 %	1.6%	8.2%	12.6%	2.2%		24.6%
몽골 전체	빈도	8	67	95	13		183
	연령 중 %	4.4%	36.6%	51.9%	7.1%		100.0%
	전체 %	4.4%	36.6%	51.9%	7.1%		100.0%

Pearson 카이제곱 2.819

20-29세	빈도	5	18	24	11	11	69
	연령 중 %	7.2%	26.1%	34.8%	15.9%	15.9%	100.0%
	전체 %	2.7%	9.8%	13.1%	6.0%	6.0%	37.7%
30-39세	빈도	5	18	27	1	3	54
	연령 중 %	9.3%	33.3%	50.0%	1.9%	5.6%	100.0%
	전체 %	2.7%	9.8%	14.8%	.5%	1.6%	29.5%
40-49세	빈도	8	21	20	4	7	60
	연령 중 %	13.3%	35.0%	33.3%	6.7%	11.7%	100.0%
	전체 %	4.4%	11.5%	10.9%	2.2%	3.8%	32.8%
한국 전체	빈도	18	57	71	16	21	183
	연령 중 %	9.8%	31.1%	38.8%	8.7%	11.5%	100.0%
	전체 %	9.8%	31.1%	38.8%	8.7%	11.5%	100.0%

Pearson 카이제곱 14.835

4.8.3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 불규칙적인 비율이 높고, 30~40대의 경우 규칙적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 불규칙적인 비율이 높고, 30~40대의 경우 규칙적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통계적으로 20대의 경우에는 기상 및 취침이 불규칙하고, 30~40대의 경우에는 기상 및 취침이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9> 기상 및 취침

구분		기상 및 취침		전체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20-29세	빈도	21	48	69
	연령 중 %	30.4%	69.6%	100.0%
	전체 %	11.5%	26.4%	37.9%
30-39세	빈도	40	29	69
	연령 중 %	58.0%	42.0%	100.0%
	전체 %	22.0%	15.9%	37.9%
40-49세	빈도	29	15	44
	연령 중 %	65.9%	34.1%	100.0%
	전체 %	15.9%	8.2%	24.2%
몽골 전체	빈도	90	92	182
	연령 중 %	49.5%	50.5%	100.0%
	전체 %	49.5%	50.5%	100.0%
Pearson 카이제곱 16.753***				
20-29세	빈도	33	35	0
	연령 중 %	48.5%	51.5%	.0%
	전체 %	18.1%	19.2%	.0%
30-39세	빈도	35	19	0
	연령 중 %	64.8%	35.2%	.0%
	전체 %	19.2%	10.4%	.0%
40-49세	빈도	40	19	1
	연령 중 %	66.7%	31.7%	1.7%
	전체 %	22.0%	10.4%	.5%
한국 전체	빈도	108	73	1
	연령 중 %	59.3%	40.1%	.5%
	전체 %	59.3%	40.1%	.5%
Pearson 카이제곱 7.769				

***p<.001

4.8.4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운동 여부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운동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끔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운동여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운동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40대의 경우 가끔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1주에 1~2번 정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운동 여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운동을 가끔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운동을 1주에 1~2번 정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0> 운동 여부

구분		운동 여부					전체
		매일 한다	1주 1-2번	1주 3-4번	가끔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20-29 세	빈도	3	13	2	37	14	69
	연령 중 %	4.3%	18.8%	2.9%	53.6%	20.3%	100.0%
	전체 %	1.6%	7.1%	1.1%	20.3%	7.7%	37.9%
30-39 세	빈도	1	9	1	31	26	68
	연령 중 %	1.5%	13.2%	1.5%	45.6%	38.2%	100.0%
	전체 %	.5%	4.9%	.5%	17.0%	14.3%	37.4%
40-49 세	빈도	5	1	4	21	14	45
	연령 중 %	11.1%	2.2%	8.9%	46.7%	31.1%	100.0%
	전체 %	2.7%	.5%	2.2%	11.5%	7.7%	24.7%
몽골 전체	빈도	9	23	7	89	54	182
	연령 중 %	4.9%	12.6%	3.8%	48.9%	29.7%	100.0%
	전체 %	4.9%	12.6%	3.8%	48.9%	29.7%	100.0%

Pearson 카이제곱 19.559*

20-29 세	빈도	5	14	7	30	12	68
	연령 중 %	7.4%	20.6%	10.3%	44.1%	17.6%	100.0%
	전체 %	2.7%	7.7%	3.8%	16.5%	6.6%	37.4%
30-39 세	빈도	4	20	11	9	10	54
	연령 중 %	7.4%	37.0%	20.4%	16.7%	18.5%	100.0%
	전체 %	2.2%	11.0%	6.0%	4.9%	5.5%	29.7%
40-49 세	빈도	10	12	10	16	12	60
	연령 중 %	16.7%	20.0%	16.7%	26.7%	20.0%	100.0%
	전체 %	5.5%	6.6%	5.5%	8.8%	6.6%	33.0%
한국 전체	빈도	19	46	28	55	34	182
	연령 중 %	10.4%	25.3%	15.4%	30.2%	18.7%	100.0%
	전체 %	10.4%	25.3%	15.4%	30.2%	18.7%	100.0%

Pearson 카이제곱 17.589*

*p<.05

4.8.5 몽골과 한국여성의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에는 자주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자주 받는다는 비율이 낮고 가끔 받는다는 비율이 동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끔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 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 스트레스 정도

구분		스트레스 정도					전체
		매일 받는다	자주 받는다	가끔 받는다	거의 매일 받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20-29 세	빈도	16	29	21	3		69
	연령 중 %	23.2%	42.0%	30.4%	4.3%		100.0%
	전체 %	8.8%	15.9%	11.5%	1.6%		37.9%
30-39 세	빈도	19	23	19	8		69
	연령 중 %	27.5%	33.3%	27.5%	11.6%		100.0%
	전체 %	10.4%	12.6%	10.4%	4.4%		37.9%
40-49 세	빈도	2	16	16	10		44
	연령 중 %	4.5%	36.4%	36.4%	22.7%		100.0%
	전체 %	1.1%	8.8%	8.8%	5.5%		24.2%
몽골 전체	빈도	37	68	56	21		182
	연령 중 %	20.3%	37.4%	30.8%	11.5%		100.0%
	전체 %	20.3%	37.4%	30.8%	11.5%		100.0%

Pearson 카이제곱 16.697*

20-29 세	빈도	8	20	33	3	5	69
	연령 중 %	11.6%	29.0%	47.8%	4.3%	7.2%	100.0%
	전체 %	4.4%	10.9%	18.0%	1.6%	2.7%	37.7%
30-39 세	빈도	3	19	23	4	5	54
	연령 중 %	5.6%	35.2%	42.6%	7.4%	9.3%	100.0%
	전체 %	1.6%	10.4%	12.6%	2.2%	2.7%	29.5%
40-49 세	빈도	10	13	23	4	9	60
	연령 중 %	16.7%	21.7%	38.3%	6.7%	15.0%	100.0%
	전체 %	5.5%	7.1%	12.6%	2.2%	4.9%	32.8%
한국 전체	빈도	21	52	79	11	19	183
	연령 중 %	11.5%	28.4%	43.2%	6.0%	10.4%	100.0%
	전체 %	11.5%	28.4%	43.2%	6.0%	10.4%	100.0%

Pearson 카이제곱 10.112

*p<.05

4.8.6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30~40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것은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대와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대와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의 30~40대 경우에는 한국여성 30~40대를 비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 스트레스 관리

구분		스트레스 관리		전체
		예	아니오	
20-29세	빈도	33	36	69
	연령 중 %	47.8%	52.2%	100.0%
	전체 %	18.1%	19.8%	37.9%
30-39세	빈도	37	31	68
	연령 중 %	54.4%	45.6%	100.0%
	전체 %	20.3%	17.0%	37.4%
40-49세	빈도	31	14	45
	연령 중 %	68.9%	31.1%	100.0%
	전체 %	17.0%	7.7%	24.7%
몽골전체	빈도	101	81	182
	연령 중 %	55.5%	44.5%	100.0%
	전체 %	55.5%	44.5%	100.0%
Pearson 카이제곱 4.944				
20-29세	빈도	21	47	69
	연령 중 %	30.4%	68.1%	100.0%
	전체 %	11.5%	25.7%	37.7%
30-39세	빈도	15	35	54
	연령 중 %	27.8%	64.8%	100.0%
	전체 %	8.2%	19.1%	29.5%
40-49세	빈도	16	43	60
	연령 중 %	26.7%	71.7%	100.0%
	전체 %	8.7%	23.5%	32.8%
한국전체	빈도	52	125	183
	연령 중 %	28.4%	68.3%	100.0%
	전체 %	28.4%	68.3%	100.0%
Pearson 카이제곱 4.355				

4.8.7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일 하는 환경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일하는 환경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내부에서 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일하는 환경과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일하는 환경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내부에서 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일하는 환경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3> 일하는 환경

구분	일하는 환경					전체
	외부	내부	외부 내부	내부인테 온도 높음	집	
20-29 세	빈도	2	48	9	5	69
	연령 중 %	2.9%	69.6%	13.0%	7.2%	100.0%
	전체 %	1.1%	26.2%	4.9%	2.7%	37.7%
30-39 세	빈도	3	55	7	3	69
	연령 중 %	4.3%	79.7%	10.1%	4.3%	100.0%
	전체 %	1.6%	30.1%	3.8%	1.6%	37.7%
40-49 세	빈도	1	40	1	3	45
	연령 중 %	2.2%	88.9%	2.2%	6.7%	100.0%
	전체 %	.5%	21.9%	.5%	1.6%	24.6%
몽골 전체	빈도	6	143	17	11	183
	연령 중 %	3.3%	78.1%	9.3%	6.0%	100.0%
	전체 %	3.3%	78.1%	9.3%	6.0%	100.0%

Pearson 카이제곱 11.299

20-29 세	빈도	3	46	15	2	3	69
	연령 중 %	4.3%	66.7%	21.7%	2.9%	4.3%	100.0%
	전체 %	1.6%	25.1%	8.2%	1.1%	1.6%	37.7%
30-39 세	빈도	4	33	15	2	0	54
	연령 중 %	7.4%	61.1%	27.8%	3.7%	.0%	100.0%
	전체 %	2.2%	18.0%	8.2%	1.1%	.0%	29.5%
40-49 세	빈도	5	29	19	1	6	60
	연령 중 %	8.3%	48.3%	31.7%	1.7%	10.0%	100.0%
	전체 %	2.7%	15.8%	10.4%	.5%	3.3%	32.8%
한국 전체	빈도	12	108	49	5	9	183
	연령 중 %	6.6%	59.0%	26.8%	2.7%	4.9%	100.0%
	전체 %	6.6%	59.0%	26.8%	2.7%	4.9%	100.0%

Pearson 카이제곱 10.252

4.8.8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언제 일 하는가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언제 일하는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주간에 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언제 일하는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언제 일하는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주간에 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언제 일하는가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4> 언제 일하는

구분		언제일				전체
		주간	야간	주야 바뀌면서	일을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58	3	3	5	69
	연령 중 %	84.1%	4.3%	4.3%	7.2%	100.0%
	전체 %	32.0%	1.7%	1.7%	2.8%	38.1%
30-39 세	빈도	62	3	1	1	67
	연령 중 %	92.5%	4.5%	1.5%	1.5%	100.0%
	전체 %	34.3%	1.7%	.6%	.6%	37.0%
40-49 세	빈도	43	1	1	0	45
	연령 중 %	95.6%	2.2%	2.2%	.0%	100.0%
	전체 %	23.8%	.6%	.6%	.0%	24.9%
몽골 전체	빈도	163	7	5	6	181
	연령 중 %	90.1%	3.9%	2.8%	3.3%	100.0%
	전체 %	90.1%	3.9%	2.8%	3.3%	100.0%

Pearson 카이제곱 7.340

20-29 세	빈도	45	7	7	10	69
	연령 중 %	65.2%	10.1%	10.1%	14.5%	100.0%
	전체 %	24.6%	3.8%	3.8%	5.5%	37.7%
30-39 세	빈도	46	4	1	3	54
	연령 중 %	85.2%	7.4%	1.9%	5.6%	100.0%
	전체 %	25.1%	2.2%	.5%	1.6%	29.5%
40-49 세	빈도	46	2	7	5	60
	연령 중 %	76.7%	3.3%	11.7%	8.3%	100.0%
	전체 %	25.1%	1.1%	3.8%	2.7%	32.8%
한국 전체	빈도	137	13	15	18	183
	연령 중 %	74.9%	7.1%	8.2%	9.8%	100.0%
	전체 %	74.9%	7.1%	8.2%	9.8%	100.0%

Pearson 카이제곱 10.276

4.8.9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근로시간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평균근로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8시간 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평균근로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근로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경우에는 8시간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에는 8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근로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 20대에 비하면 한국여성 20대의 평균근로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 평균 근로시간

구분		평균 근로시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	8-12 시간	12시간 이상	일에 따라 다름	
20-29세	빈도	17	29	13	3	6	68
	연령 중 %	25.0%	42.6%	19.1%	4.4%	8.8%	100.0%
	전체 %	9.3%	15.9%	7.1%	1.6%	3.3%	37.4%
30-39세	빈도	12	31	20	3	3	69
	연령 중 %	17.4%	44.9%	29.0%	4.3%	4.3%	100.0%
	전체 %	6.6%	17.0%	11.0%	1.6%	1.6%	37.9%
40-49세	빈도	7	25	8	4	1	45
	연령 중 %	15.6%	55.6%	17.8%	8.9%	2.2%	100.0%
	전체 %	3.8%	13.7%	4.4%	2.2%	.5%	24.7%
몽골 전체	빈도	36	85	41	10	10	182
	연령 중 %	19.8%	46.7%	22.5%	5.5%	5.5%	100.0%
	전체 %	19.8%	46.7%	22.5%	5.5%	5.5%	100.0%

Pearson 카이제곱 8.329

20-29세	빈도	29	17	9	1	13	69
	연령 중 %	42.0%	24.6%	13.0%	1.4%	18.8%	100.0%
	전체 %	15.8%	9.3%	4.9%	.5%	7.1%	37.7%
30-39세	빈도	12	28	10	0	4	54
	연령 중 %	22.2%	51.9%	18.5%	.0%	7.4%	100.0%
	전체 %	6.6%	15.3%	5.5%	.0%	2.2%	29.5%
40-49세	빈도	13	23	14	1	9	60
	연령 중 %	21.7%	38.3%	23.3%	1.7%	15.0%	100.0%
	전체 %	7.1%	12.6%	7.7%	.5%	4.9%	32.8%
한국 전체	빈도	54	68	33	2	26	183
	연령 중 %	29.5%	37.2%	18.0%	1.1%	14.2%	100.0%
	전체 %	29.5%	37.2%	18.0%	1.1%	14.2%	100.0%

Pearson 카이제곱 17.530*

* $p < .05$

4.8.10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햇빛 노출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햇빛 노출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에 1~2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햇빛 노출 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햇빛 노출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에 1~2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햇빛 노출 시간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6> 햇빛 노출

구분		햇빛 노출					전체
		하루 1-2시간	하루 3-4시간	하루 5-6시간	하루 8시간 이상	노출 되지 않음	
20-29 세	빈도	36	23	6	1	3	69
	연령 중 %	52.2%	33.3%	8.7%	1.4%	4.3%	100.0%
	전체 %	19.8%	12.6%	3.3%	.5%	1.6%	37.9%
30-39 세	빈도	34	26	5	1	3	69
	연령 중 %	49.3%	37.7%	7.2%	1.4%	4.3%	100.0%
	전체 %	18.7%	14.3%	2.7%	.5%	1.6%	37.9%
40-49 세	빈도	25	11	3	0	5	44
	연령 중 %	56.8%	25.0%	6.8%	.0%	11.4%	100.0%
	전체 %	13.7%	6.0%	1.6%	.0%	2.7%	24.2%
몽골 전체	빈도	95	60	14	2	11	182
	연령 중 %	52.2%	33.0%	7.7%	1.1%	6.0%	100.0%
	전체 %	52.2%	33.0%	7.7%	1.1%	6.0%	100.0%

Pearson 카이제곱 5.115

20-29 세	빈도	36	19	4		10	69
	연령 중 %	52.2%	27.5%	5.8%		14.5%	100.0%
	전체 %	19.7%	10.4%	2.2%		5.5%	37.7%
30-39 세	빈도	29	15	6		4	54
	연령 중 %	53.7%	27.8%	11.1%		7.4%	100.0%
	전체 %	15.8%	8.2%	3.3%		2.2%	29.5%
40-49 세	빈도	32	15	4		9	60
	연령 중 %	53.3%	25.0%	6.7%		15.0%	100.0%
	전체 %	17.5%	8.2%	2.2%		4.9%	32.8%
한국 전체	빈도	97	49	14		23	183
	연령 중 %	53.0%	26.8%	7.7%		12.6%	100.0%
	전체 %	53.0%	26.8%	7.7%		12.6%	100.0%

Pearson 카이제곱 2.982

4.8.11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야외활동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야외활동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 여성의 연령대와 야외활동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야외활동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주말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야외활동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이 야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는 반면에 한국여성은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7> 야외활동

구분		야외활동						전체
		주말 마다	1개월 1번	1개월 2번 이상	6개월 1번	6개월 2번 이상	거의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8	15	10	6	3	27	69
	연령 중 %	11.6%	21.7%	14.5%	8.7%	4.3%	39.1%	100.0%
	전체 %	4.4%	8.2%	5.5%	3.3%	1.6%	14.8%	37.7%
30-39 세	빈도	8	12	7	15	0	27	69
	연령 중 %	11.6%	17.4%	10.1%	21.7%	.0%	39.1%	100.0%
	전체 %	4.4%	6.6%	3.8%	8.2%	.0%	14.8%	37.7%
40-49 세	빈도	3	11	1	10	3	17	45
	연령 중 %	6.7%	24.4%	2.2%	22.2%	6.7%	37.8%	100.0%
	전체 %	1.6%	6.0%	.5%	5.5%	1.6%	9.3%	24.6%
몽골 전체	빈도	19	38	18	31	6	71	183
	연령 중 %	10.4%	20.8%	9.8%	16.9%	3.3%	38.8%	100.0%
	전체 %	10.4%	20.8%	9.8%	16.9%	3.3%	38.8%	100.0%

Pearson 카이제곱 14.219

20-29 세	빈도	31	11	13	2	2	9	69
	연령 중 %	44.9%	15.9%	18.8%	2.9%	2.9%	13.0%	100.0%
	전체 %	16.9%	6.0%	7.1%	1.1%	1.1%	4.9%	37.7%
30-39 세	빈도	30	5	13	0	2	4	54
	연령 중 %	55.6%	9.3%	24.1%	.0%	3.7%	7.4%	100.0%
	전체 %	16.4%	2.7%	7.1%	.0%	1.1%	2.2%	29.5%
40-49 세	빈도	21	17	12	0	1	9	60
	연령 중 %	35.0%	28.3%	20.0%	.0%	1.7%	15.0%	100.0%
	전체 %	11.5%	9.3%	6.6%	.0%	.5%	4.9%	32.8%
한국 전체	빈도	82	33	38	2	5	22	183
	연령 중 %	44.8%	18.0%	20.8%	1.1%	2.7%	12.0%	100.0%
	전체 %	44.8%	18.0%	20.8%	1.1%	2.7%	12.0%	100.0%

Pearson 카이제곱 15.966

4.8.12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의 연관성

몽골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몽골여성의 연령과 자외선 노출된 취미생활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여성의 연령과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의 연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8>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생활

구분		자외선에 노출 된 취미 생활						전체
		매일	1주일 2-3번	1주일 4-5번	한달 1-3번	한달 1번	하지 않다	
20-29 세	빈도	6	9	1	7	7	39	69
	연령 중 %	8.7%	13.0%	1.4%	10.1%	10.1%	56.5%	100.0%
	전체 %	3.3%	4.9%	.5%	3.8%	3.8%	21.3%	37.7%
30-39 세	빈도	4	9	2	7	7	40	69
	연령 중 %	5.8%	13.0%	2.9%	10.1%	10.1%	58.0%	100.0%
	전체 %	2.2%	4.9%	1.1%	3.8%	3.8%	21.9%	37.7%
40-49 세	빈도	4	3	0	2	4	32	45
	연령 중 %	8.9%	6.7%	.0%	4.4%	8.9%	71.1%	100.0%
	전체 %	2.2%	1.6%	.0%	1.1%	2.2%	17.5%	24.6%
몽골 전체	빈도	14	21	3	16	18	111	183
	연령 중 %	7.7%	11.5%	1.6%	8.7%	9.8%	60.7%	100.0%
	전체 %	7.7%	11.5%	1.6%	8.7%	9.8%	60.7%	100.0%

Pearson 카이제곱 5.524

20-29 세	빈도	6	11	0	9	10	29	69
	연령 중 %	8.7%	15.9%	.0%	13.0%	14.5%	42.0%	100.0%
	전체 %	3.3%	6.0%	.0%	4.9%	5.5%	15.8%	37.7%
30-39 세	빈도	6	14	0	6	12	16	54
	연령 중 %	11.1%	25.9%	.0%	11.1%	22.2%	29.6%	100.0%
	전체 %	3.3%	7.7%	.0%	3.3%	6.6%	8.7%	29.5%
40-49 세	빈도	6	15	2	6	8	21	60
	연령 중 %	10.0%	25.0%	3.3%	10.0%	13.3%	35.0%	100.0%
	전체 %	3.3%	8.2%	1.1%	3.3%	4.4%	11.5%	32.8%
한국 전체	빈도	18	40	2	21	30	66	183
	연령 중 %	9.8%	21.9%	1.1%	11.5%	16.4%	36.1%	100.0%
	전체 %	9.8%	21.9%	1.1%	11.5%	16.4%	36.1%	100.0%

Pearson 카이제곱 12.374

4.8.13 몽골과 한국여성의 자외선으로 피부 보호 방법의 교차분석

몽골여성 20~30대의 경우에는 선글라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9> 자외선으로 피부 보호 방법

구분		피부보호방법						합계
		자외선 차단	모자	선글라스	양산	모두 사용	모두 안사용	
20-29 세	빈도	19	18	25	1	3	15	69
	연령 중 %	27.5%	26.1%	36.2%	1.4%	4.3%	21.7%	
	전체 %	10.4%	9.8%	13.7%	.5%	1.6%	8.2%	37.7%
30-39 세	빈도	20	16	29	2	1	20	69
	연령 중 %	29.0%	23.2%	42.0%	2.9%	1.4%	29.0%	
	전체 %	10.9%	8.7%	15.8%	1.1%	.5%	10.9%	37.7%
40-49 세	빈도	18	8	16	1	1	14	45
	연령 중 %	40.0%	17.8%	35.6%	2.2%	2.2%	31.1%	
	전체 %	9.8%	4.4%	8.7%	.5%	.5%	7.7%	24.6%
몽골 전체	빈도	57	42	70	4	5	49	183
	전체 %	31.1%	23.0%	38.3%	2.2%	2.7%	26.8%	100.0%
20-29 세	빈도	55	16	21	1	7	3	66
	연령 중 %	83.3%	24.2%	31.8%	1.5%	10.6%	4.5%	
	전체 %	30.9%	9.0%	11.8%	.6%	3.9%	1.7%	37.1%
30-39 세	빈도	43	13	14	10	7	0	53
	연령 중 %	81.1%	24.5%	26.4%	18.9%	13.2%	.0%	
	전체 %	24.2%	7.3%	7.9%	5.6%	3.9%	.0%	29.8%
40-49 세	빈도	42	21	17	5	5	0	59
	연령 중 %	71.2%	35.6%	28.8%	8.5%	8.5%	.0%	
	전체 %	23.6%	11.8%	9.6%	2.8%	2.8%	.0%	33.1%
한국 전체	빈도	140	50	52	16	19	3	178
	전체 %	78.7%	28.1%	29.2%	9.0%	10.7%	1.7%	100.0%

4.8.14 몽골과 한국여성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분석

몽골여성의 연령과 환경오염 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는 오염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환경오염 여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몽골여성들은 한국여성들에 비해 사는 환경은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0> 환경오염 여부

구분		환경오염					전체
		매우 오염되어 있다	오염 되었다	보통이다	별로 오염 되지 않았다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20-29 세	빈도	13	34	19	1	2	69
	연령 중 %	18.8%	49.3%	27.5%	1.4%	2.9%	100.0%
	전체 %	7.1%	18.6%	10.4%	.5%	1.1%	37.7%
30-39 세	빈도	12	35	18	4	0	69
	연령 중 %	17.4%	50.7%	26.1%	5.8%	.0%	100.0%
	전체 %	6.6%	19.1%	9.8%	2.2%	.0%	37.7%
40-49 세	빈도	5	30	6	4	0	45
	연령 중 %	11.1%	66.7%	13.3%	8.9%	.0%	100.0%
	전체 %	2.7%	16.4%	3.3%	2.2%	.0%	24.6%
몽골 전체	빈도	30	99	43	9	2	183
	연령 중 %	16.4%	54.1%	23.5%	4.9%	1.1%	100.0%
	전체 %	16.4%	54.1%	23.5%	4.9%	1.1%	100.0%

Pearson 카이제곱 12.014

20-29 세	빈도	1	7	43	17	1	69
	연령 중 %	1.4%	10.1%	62.3%	24.6%	1.4%	100.0%
	전체 %	.5%	3.8%	23.5%	9.3%	.5%	37.7%
30-39 세	빈도	1	4	25	21	3	54
	연령 중 %	1.9%	7.4%	46.3%	38.9%	5.6%	100.0%
	전체 %	.5%	2.2%	13.7%	11.5%	1.6%	29.5%
40-49 세	빈도	3	0	31	24	2	60
	연령 중 %	5.0%	.0%	51.7%	40.0%	3.3%	100.0%
	전체 %	1.6%	.0%	16.9%	13.1%	1.1%	32.8%
한국 전체	빈도	5	11	99	62	6	183
	연령 중 %	2.7%	6.0%	54.1%	33.9%	3.3%	100.0%
	전체 %	2.7%	6.0%	54.1%	33.9%	3.3%	100.0%

Pearson 카이제곱 13.338

4.8.15 몽골과 한국여성의 공기오염 여부에 대한 분석

몽골여성의 연령과 공기오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오염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한국여성의 연령과 공기오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몽골여성들이 자기가 사는 곳이 공기오염이 됐다는 생각하는 반면 한국여성들은 공기오염이 보통이라는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 공기 오염 여부

구분		공기오염					전체
		매우 오염돼 있다	오염 되 있다	보통이 다	별로 오염되지않았 다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20-29 세	빈도	11	42	10	4	2	69
	연령 중 %	15.9%	60.9%	14.5%	5.8%	2.9%	100.0%
	전체 %	6.0%	23.1%	5.5%	2.2%	1.1%	37.9%
30-39 세	빈도	10	41	14	3	0	68
	연령 중 %	14.7%	60.3%	20.6%	4.4%	.0%	100.0%
	전체 %	5.5%	22.5%	7.7%	1.6%	.0%	37.4%
40-49 세	빈도	9	27	4	5	0	45
	연령 중 %	20.0%	60.0%	8.9%	11.1%	.0%	100.0%
	전체 %	4.9%	14.8%	2.2%	2.7%	.0%	24.7%
몽골 전체	빈도	30	110	28	12	2	182
	연령 중 %	16.5%	60.4%	15.4%	6.6%	1.1%	100.0%
	전체 %	16.5%	60.4%	15.4%	6.6%	1.1%	100.0%

Pearson 카이제곱 8.176

20-29 세	빈도	3	4	39	21	2	69
	연령 중 %	4.3%	5.8%	56.5%	30.4%	2.9%	100.0%
	전체 %	1.6%	2.2%	21.3%	11.5%	1.1%	37.7%
30-39 세	빈도	0	4	24	23	3	54
	연령 중 %	.0%	7.4%	44.4%	42.6%	5.6%	100.0%
	전체 %	.0%	2.2%	13.1%	12.6%	1.6%	29.5%
40-49 세	빈도	1	0	33	24	2	60
	연령 중 %	1.7%	.0%	55.0%	40.0%	3.3%	100.0%
	전체 %	.5%	.0%	18.0%	13.1%	1.1%	32.8%
한국 전체	빈도	4	8	96	68	7	183
	연령 중 %	2.2%	4.4%	52.5%	37.2%	3.8%	100.0%
	전체 %	2.2%	4.4%	52.5%	37.2%	3.8%	100.0%

Pearson 카이제곱 9.77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한국여성과 몽골 울란바타르에 사는 몽골여성 20~40대를 중심으로 각각 183명 중 2014년 04월 15일부터 2014년 05월 15일 까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일반적인 몸 상태 9문항, 피부 상태 5문항,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상환 9문항, 화장품 사용에 대한 11문항, 피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11문항, 피부건강에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에 대한 6문항, 음주·흡연 여부 2문항,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15문항 모두 6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V.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고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여성이 20 ~29세가 69명(37.7%), 40~49세가 60명(32.8%), 30~39세가 54명(29.5%) 몽골여성이 20~29세와 30~39세가 각각 69명(37.7%), 40~45세가 45명에(24.6%)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고졸이 77명(42.1%) 가장 많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대졸이 129명(70.75%)이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별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이 88명(48.1%) 가장 많았으며 몽골여성 경우에는 기혼이 140명(76.5%)이 가장 많았다. 자녀 경우에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다는 82명(44.8%) 가장 많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가 61명 (33.3%)가 가장 많았다. 수입별로는 한국여성 경우에는 150만이상이 72명(39.3%)가 가장 많았으며 몽골여성 경우에는 20~25만원이 90명(49.2%) 가장 많았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이 몸 상태에서 키의 경우에는 한국여성이 160~170cm이 90명(49.2%), 몽골여성 150~160cm 107명(58.5%) 대다수 자치하였고, 임신 여부의 경우에는 한국여성 180명(98.3%)와 몽골여성 175명(96.2%)이 임신하지 않다는 응답하였다. 피임의 여부로 한국여성 171명

(93.4%)와 몽골여성 165(90.2%)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비 여부에는 한국여성의 경우 138명(75.4%)이 변비가 없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몽골여성의 경우 92명(50.3%)가 변비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만성질환 여부에 한국여성의 경우 169명(92.3%), 몽골여성의 148명(80.9%)가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피부질환 여부에는 한국여성의 166명(90.7%), 몽골여성의 176명(96.2%)가 피부질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형수술 여부에는 한국여성의 129명(70.5%), 몽골여성의 174명(95.1%)가 노화방지를 위해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한국여성과 몽골여성의 안면 피부 상태를 살펴보면, 피부유형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복합성이 63명(34.4%)과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복합성이 79명(43.2%)이 가장 많았다. 피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주근깨와 기미는 44명(24.0%), 피부건조 42명(23.0%), 여드름 35명(19.1%)가,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주근깨와 기미가 53명(29.9%), 주름이 48명(26.2%), 피부건조 46명(25.1%)이 일 이 삼등으로 늘어서는 것을 살펴보면 한국여성들의 제일 관심 있는 피부문제는 주근깨와 기미, 피부 건조, 여드름이 있는 반면에 몽골 여성들의 제일 관심 있는 피부 문제는 주근깨와 기미, 주름, 피부건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볼 부위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볼 부위에 담김이 있다는 52명(28.4%),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온도 영향으로 쉽게 빨갛게 된다가 57명(31.1%)가 가장 많았다. 피부 변화에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쉽게 건조해진다가 54명(22.7%) 몽골여성의 경우 쉽게 건조해진다가 84명(52.3%)가 가장 높은 것을 살펴보면 한국여성에 비해 몽골여성의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면 주름 상태에 있어서는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특정한 표정을 지을 경우에 주름이 보인다가 64명(35.0%)가 가장 높았으며 몽골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도 잔주름이 보인다가 68명(37.2%)가 가장 높았던 것을 살펴보면 한국여성에 비해 몽골여성의 안면 피부가 주름이 잘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피부 관리태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지식습득의 연관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5$, $p<.001$),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20~30대에서는 대부분은 피부 관리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었지만 몽골여성 40대 경우에는 대부분

은 지식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다는 반면에 한국여성 40대 경우에는 대부분은 피부 지식을 피부 관리실에서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세안횟수의 연관성과,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물의온도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모두에서 대부분은 하루에 2번 세안을 한다는 것을,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30~40대 경우에는 미온수로 세안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몽골여성 20대 경우에는 찬물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 한국여성 20대 경우에는 미온수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클렌징 사용의 연관성,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클렌징 종류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클렌징을 몽골여성 20대는 저녁에만, 30~40대는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한국여성 20대와 40대는 클렌징을 저녁에만, 30대는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세안할 때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비누 사용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클렌징 폼 사용이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마사지 크림과 마스크 팩 등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 했지만 몽골여성 연령대 모두에서 한 달에 1회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20~30대의 경우 1주일에 2회의 비율이, 40대의 경우에는 1주일에 1회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을 살펴보면 몽골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마사지 크림과 마스크 팩 등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각질제거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하고,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연령대 모두에서 각질제거를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각질제거를 1주일에 1~2회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화장품 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색소화장품 사용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하고,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대 모두에서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화장품 선택상담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하지만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연령대 모두에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 화장품 판매원의 상담을 받는 반면에 한국여성 20~30대 경우에는 광고와 인터넷, TV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40대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원 상담으로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의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몽골여성 모든 연령대에서는 영양크림을 사용한다면, 한국여성 20대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30~40대에서는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 모두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교차분석을 살펴보면 몽골여성의 20대 경우에는 보습화장품, 30대 경우에는 보습과 주름개선 화장품, 40대 경우에는 주름개선 화장품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한국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보습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로션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하고,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에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 모든 연령대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에센스 사용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 했지만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영양크림 사용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못했지만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영양크림을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저녁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p<.05$, $p<.05$)가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크림을 사용하지 않다고 추종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여성 20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30~40대의 경우에는 매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반복의 연관성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 했지만 몽골여성 20대와 40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 20대와 40대에서는 항상 바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외출 시에만 바른다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의 30대 경우에는 항상 바른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안면피부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물 섭취의 연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몽골여성 20~30대에서는 하루에 2~4잔 비율이 높았으며 40대에서는 4~5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 30~40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다는 반면에 한국여성 30~40대 경우에는 하루에 2~3잔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 20~30대의 경우에는 육류의 비율이 높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채소와 육류의 비율이 등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몽골여성 30~40대는 가끔 먹는 연령대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

일곱 번째, 몽골여성 40대 경우에는 한 달에 1번 씩 음주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여성 40대 경우에는 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 20대의 경우에는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 연령대, 30~40대는 가끔 먹는 연령대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

여덟 번째, 피부상태에 미치는 생활습관 수면, 운동, 환경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수면시간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는 6-8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수면방향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 했지만 몽골여성 40대 경우에는 눕는 방향이 바뀌면서 수면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 40대 경우에는 옆으로 누어 자는 비율이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기상 및 취침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20대 경우에는 기상 및 취침이 불규칙하고 30~40대 경우에는 기상 및 취침이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운동여부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p<.01$, $p<.01$)가 나타났다. 몽골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운동을 가끔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여성의 30대 경우에는 운동을 1주에 1-2번 정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지만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다. 몽골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스트레스 관리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몽골여성의 30~40대가 한국여성 30~40대를 비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평균근로시간의 연관성에서는 몽골여성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한국여성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몽골여성 20대에 비해 한국여성 20대의 평균근로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야외활동의 연관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했지만 몽골여성이 야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반면에 한국 여성은 야외활동을 주말마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연령과 피부보호방법의 교차분석을 살펴보면, 몽골여성 20~30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비율과 40대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시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 도구의 설문지를 여러 분석을 실시 할 수 있게 구성하여, 몽골여성과 한국여성의 피부 관리 태도와 안면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비교하므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성증, 심정묘, 김정숙, 류현지, 이승자, 이은희 외(2012). 『림프드레나 지 제2판』 . 서울: 정담미디어·학지사,
- 이나경. (2011). 『동안 피부 레시피』 . 서울: 기획출판 거름
- 이향우, 김주연. 이연희(2003). 『피부과학』 . 서울: 광문학.
- 정진호. (2010). 『피부노화학』 . 서울: 도서출판 하누리.
- 조애경. (2010). 『W 뷰티』 . 서울: 현문사.
- 한영숙, 최태부, 이연희, 김춘자, 김주연, 장미혜 역. (2011). 『피부학 제3 판』 . 서울: 정담미디어·학지사,
- Frederic H. Martini, Michael J Timmons, Robert B. Tallitsh (Ed.). (2010). 『인체해부학』 . 우원홍, 김명자, 김범희, 김연섭, 김정상, 김정아 외 역.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 Keith L. Moore·T.V.N. Persaud (Ed.). (2008). 『인체발생학 제8판』 . 길영기, 김대중, 김원식, 김재영, 김종중, 김홍태 외 역. elsevier* public.

논문 및 학술지

- 강지영. (2013). 『젊은 여성의 식습관이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석사 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 김귀미. (2009). 『피부 노화의 인식 및 관리 습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 김유선. (2008). 『직업 특성과 피부 상태와의 관련성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 김수정. (2001). 『여성의 피부형과 피지분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 김지원. (2010). 『자외선의 피부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이은영. (2006). 『20·30대 여성의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조한희. (2013). 『여성의 태도와 급관이 안면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홍진이. (2007). 『여성의 피부건강상태 및 관련 생활행태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2.국외문헌

- Sylvia S. Mader (Ed.). (2001). 『*Understanding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fourth editi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http://steria.co.kr/bbs/board.php?bo_table=c2&wr_id=88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이칭허롤러입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과 몽골 여성의 안면 피부 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의 자료 수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나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으니 해당 설문내용에 귀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귀하의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을 작성해 주심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 04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 윤미선

뷰티에스테틱 전공 석사과정: 이칭허롤러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해주세요.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고졸 ③ 초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5. 귀하의 월평균 수입이 얼마입니까?
① 20만원미만 ② 20~50만원 ③ 50~80만원
④ 80~110만원 ⑤ 110~ 150만원 ⑥ 150만원 이상

II. 다음은 일반적인 몸의 상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키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150cm 미만 ② 150~160cm ③ 160~170cm ④ 170cm 이상
2. 귀하의 몸무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40kg 미만 ② 40~50kg ③ 50~60kg
④ 60~70kg ⑤ 70kg 이상
3. 귀하는 현재 임신 중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4. 귀하는 현재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5. 변비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6. 귀하는 만성 질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7. 귀하는 유전적인 질환이 있으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요

8. 귀하는 피부 질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질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9. 귀하는 피부의 노화방지를 위해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Ⅲ. 다음은 **피부 상태**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
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피부는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모른다.

2. 다음 중 귀하가 가장 관심 있는 피부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피부 건조 ② 주근깨와 기미 등 색소침착 ③ 주름
④ 여드름 ⑤ 피지 과다분비 ⑥ 탄력
⑦ 기타

3. 귀하의 볼 부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 ① 붉은 혈관이 확장되어 있다.

- ② 볼 부위의 당김 현상이 있다.
- ③ 붉지 않고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
- ④ 모공이 눈에 띄게 보인다.
- ⑤ 혈관이 보이지 않지만 온도의 영향으로 금방 빨갛게 된다.

4. 귀하의 피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쉽게 붉어진다. ② 쉽게 여드름 난다. ③ 민감한 편이다.
- ④ 변화가 별로 없다. ⑤ 쉽게 건조해진다. ⑥ 번들거린다.

5. 귀하의 안면 피부에 주름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정상적인 상태에 주름이 없다.
- ② 정상적인 상태에도 잔주름이 보인다.
- ③ 특정한 표정을 지을 경우에 주름이 보인다.
- ④ 특정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깊은 주름이 보인다.

IV. 다음은 **피부 관리**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통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책, 신문, 잡지 등 ② TV, 라디오, 인터넷 등
- ③ 친구나 친척 등 ④ 피부 관리실, 피부과 등 전문가

2. 귀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세안을 하십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이상 ④ 하지 않는다.

3. 귀하의 세안하는 물의 온도는?

- ① 뜨거운 물 ② 찬물
- ③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④ 미온수

4. 귀하는 세안 시에 다음의 클렌저(클렌징로션, 클렌징오일, 클렌징크림, 클렌징 리퀴드 등)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① 날마다 사용하다 ② 저녁에만 사용하다
- ③ 자주 사용하다 ④ 가끔 사용하다
- ⑤ 사용하지 않다

5. 귀하는 세안할 때 어떤 폼 클렌징을 쓰십니까?

- ① 비누 ② 클렌징 폼
- ③ 효소 세안제 ④ 클렌징 클로스
- ⑤ 비누와 클렌징

6. 귀하는 전문 피부 관리실에 방문하는 횟수는?

- ① 일주일에 1-2번 ② 한 달에 1번
- ③ 한 달에 1-2번 ④ 특별한 날 전에 가끔
- ⑤ 방문하지 않는다.

7. 귀하는 홈케어 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사용하고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마스크와 팩을 사용한다. ② 마사지 크림을 사용한다.
- ③ 천연재료를 사용한다. ④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다.(예:한방재료)
- ⑤ 하지 않다

8. 귀하가 홈케어(마사지, 마스크 팩 등)를 사용하는 횟수는?

- ① 매일 ② 일주일에 2회 이상 ③ 일주일에 1회
- ④ 한 달에 1회 ⑤ 한 달에 2회 이상 ⑥ 하지 않는다.
- ⑦ 기타 _____

9. 귀하는 각질제거제를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횟수는?

- ① 쓰지 않는다. ② 매일 ③ 1주에 1-2회
- ④ 1주에 3회 이상 ⑤ 한 달에 1 회 ⑥ 한 달에 2 회

V. 다음은 **화장품사용**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쓰지 않다. ② 매일 ③ 1주에 1-2회
 ④ 1주에 3-4회 ⑤ 1주에 5-6회

2. 귀하는 화장품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① 가격 ② 양 ③ 기능
 ④ 성분 ⑤ 브랜드 이미지 ⑥ 기타 _____

3. 귀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보통 누구의 상담을 받습니까?
 ① 전문가 ② 아는 사람 통해 ③ 화장품 판매원
 ④ 광고, 인터넷, tv ⑤ 기타 _____

4. 귀하는 현재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사용하고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로션 ② 에센스 ③ 영양 크림 ④ 아이 크림
 ⑤ 자외선차단제 ⑥ 모두 ⑦ 사용하지 않다

5.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기능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사용하고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주름개선 화장품 ② 보습화장품
 ③ 미백화장품 ④ 모두 ⑤ 사용하지 않는다.

6. 귀하는 로션을 언제 사용합니까?
 ① 매일 아침·저녁 ② 매일아침
 ③ 매일저녁 ④ 가끔 ⑤ 사용하지 않는다.

7. 귀하는 에센스를 언제 사용합니까?
 ① 매일 아침·저녁 ② 매일아침
 ③ 매일저녁 ④ 가끔 ⑤ 사용하지 않는다.

8. 귀하는 영양 크림을 언제 사용합니까?
 ① 매일 아침·저녁 ② 매일아침
 ③ 매일저녁 ④ 가끔 ⑤ 사용하지 않는다.

9. 귀하는 아이크림을 언제 사용합니까?

- ① 매일 아침·저녁 ② 매일아침
③ 매일저녁 ④ 가끔 ⑤ 사용하지 않는다.

10. 귀하는 자외선차단제를 언제 사용합니까?

- ① 항상 ② 햇빛을 많이 받을 때만
③ 봄·여름에만 ④ 외출 시에만 ⑤ 사용하지 않는다.

11. 귀하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때 어떻게 바릅니까?

- ① 아침에 1번 만 ② 2시간 마다
③ 하루에 2번 ④ 외출 시에만 ⑤ 사용하지 않는다.

VI. 다음은 식습관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 ① 2-4잔 ② 5-6잔 ③ 7-8잔 ④ 9잔 이상

2. 귀하는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십니까?

- ① 1잔 ② 2-3잔 ③ 4잔 이상 ⑤ 마시지 않는다.

3. 귀하는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합니까?

- ① 짠 맛 ② 쓴 맛 ③ 단 맛 ④ 매운 맛
⑤ 고소한 맛 ⑥ 기타 _____

4. 귀하가 주로 즐겨먹는 식품은 무엇입니까?

- ① 채소 ② 육류 ③ 해조류 ④ 유제품
⑤ 곡물류 ⑥ 과일 ⑦ 골고루 먹는다.

5. 귀하는 인스턴트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 ① 매일 ② 자주 먹는다. ③ 가끔 먹는다.

- ④ 거의 안 먹는다. ⑤ 전혀 먹지 않는다.

6. 귀하는 건강식품을 섭취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자주 먹는다. ③ 가끔 먹는다.
④ 거의 안 먹는다. ⑤ 전혀 먹지 않는다.

VII. 다음은 음주와 흡연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음주를 어느 정도 합니까?

- ① 1주에 1번 ② 1주에 2-3번 ③ 한 달에 1번
④ 하지 않는다. ⑤ 기타 _____

1-1. 귀하는 음주를 하신다면 소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한 잔 ② 반병 미만 ③ 반병-1병
④ 1병 이상 ⑤ 기타 _____

2. 귀하는 하루에 얼마나 흡연을 하십니까?

- ① 반 갑 이하 ② 1갑 ③ 한 갑 이상 ④ 흡연하지 않는다.

2-1. 귀하는 흡연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2년
④ 2년-4년 ⑤ 5년 이상

VIII. 다음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
으시고 해당하는 대답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

- ① 4시간미만 ② 4-6시간 ③ 6-8시간 ④ 8시간 이상

2. 귀하는 수면 시 어느 쪽으로 눕습니까?

- ① 위로 ② 옆으로 ③ 바뀌면서
④ 밑으로 ⑤ 잘 모르겠다.

3. 귀하의 기상과 취침은 어떻습니까?

- ① 규칙적이다. ② 불규칙적이다.

4. 귀하는 운동을 하십니까?

- ① 매일한다. ② 1주일에 1-2번 정도 ③ 1주일에 3-4번
④ 가끔 한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5. 귀하의 스트레스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일 받는다. ② 자주 받는다. ③ 가끔 받는다.
④ 거의 매일 받는다. ⑤ 거의 받지 않는다.

6. 귀하는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7. 귀하가 일 하는 환경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외부(밖) ② 내부 ③ 외부와 내부
④ 내부인데 온도가 높은 환경 ⑤ 집

8. 귀하는 언제 일하십니까?

- ① 주간 ② 야간 ③ 주야 바뀌면서 ④ 일을 하지 않는다.

9. 귀하의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8시간미만 ② 8시간 ③ 8-12 시간
④ 12시간이상 ⑤ 일에 따라 다르다.

10. 귀하는 하루 중에 얼마나 햇빛에 노출됩니까?

- ① 하루에 1-2시간 ② 하루에 3-4시간 ③ 5-6시간
④ 하루에 8시간 이상 ⑤ 노출되지 않는다.

1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야외 활동을 하십니까?

- ① 주말마다 ② 1개월에 1번 ③ 1개월에 2번 이상
④ 6개월에 1번 ⑤ 6개월에 2번 이상 ⑥ 거의 하지 않는다.

12. 귀하는 자외선에 노출된 취미 생활 하십니까?

- ① 매일 ② 1주일에 2-3번 ③ 1주일에 4-5번
④ 한 달에 1-3번 ⑤ 한 달에 1번 ⑥ 하지 않는다.

13. 귀하가 밖에 나갈 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은(사용하고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자외선차단제 ② 모자 ③ 선글라스
④ 양산 ⑤ ①~④까지 모두 사용한다. ⑥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14. 귀하가 사는 곳의 환경오염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오염되어 있다. ② 오염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오염되지 않았다. ⑤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15. 귀하가 사는 곳이 공기의 오염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매우 오염되어 있다. ② 오염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오염되지 않았다. ⑤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Study on Facial Skin Care Attitude of Korean and Mongolian women Focused on Those aged 20s to 40s

Dashnyam Ichinkhorloo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consisting of 64 questions about general facts, general physical conditions, skin types and skin conditions, living habits, including skin care, uses of cosmetics and dietary habits, drinking, smoking, sleeping, exercise, stress and environments with women aged 20s to 40s (366)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South Korea and Ulaanbaatar, Mongolia examine facial skin care attitude of Korean and Mongolian women and analyzed their facial management attitude, and foun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Korean women consisted of 69 aged 20 to 29 (37.7%), 60 aged 40 to 49 (32.8%) and 54 aged 30 to 39 (29.5%), while Mongolian women consisted of 69 aged 20 to 29 and 30 to 39, respectively (37.7%) and 45 aged 40 to 45 (24.6%).

Second, among the subjects, most Korean women were high school graduates, unmarried, and did not have a child, while most Mongolian

women were college graduates, married and had two children. Regarding their average income, most Korean women earned over 1.5 million won a month, while most Mongolian women earned 200,000 to 250,000 won.

Third, the height of most Korean women was 160 to 170cm, while that of most Mongolian women, 150 to 160cm. Three Korean women and eight Mongolian women were pregnant, and 71 Korean women and 165 Mongolian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ve pills. Most Korean women did not have constipation, while most Mongolian women had constipation. 54 Korean women and nine Mongolian women had received aesthetic treatment or plastic surgery to prevent aging.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women were concerned most about skin problems, such as freckle, melasma, dry skin and pimple, while the Mongolian women were concerned most about freckle, melasma, wrinkle and dry skin. It was also found that compared with Korean women, facial skin of Mongolian women got dry and wrinkle easily.

Fifth, most Mongolian women and Korean women in their 20s to 30s obtained skin care knowledge from TV, radio and the Internet, and most Mongolian women in their 40s obtained TV, radio and the Internet while most Korean women in their 40s obtained knowledge about skin from skin care room.

Sixth, the Korean women in their 20s washed their face with tepid water, while the Mongolian counterpart washed with cold water. When they washed, most Mongolian women used soap, while most Korean women used cleansing foam.

Seventh, Mongolian women used massage cream and mask pack about once a month, while Korean women used them once or twice a week. Mongolian women did not exfoliate, while Korean women did it once or twice a week.

Eighth, Mongolian women of all ages had consultation with salespersons of cosmetics when choosing cosmetics, and most Korean women aged 20s and 30s referred to advertisement, the Internet and TV, while most of those in their 40s had consultation with salespersons of

cosmetics.

Ninth, of basic cosmetics, most Mongolian women of all ages used nourishing cream while most Korean women in their 20s used sunblock, and most those in 30s and 40s used all lotion, essence, nourishing cream, eye cream and sunblock. Most Mongolian women in their 20s moisturizing cosmetics, those in their 30s, moisturizing and wrinkle improvement cosmetics, and those in their 40s, wrinkle improvement cosmetics, while most Korean women of all ages used moisturizing cosmetics.

Tenth, most Mongolian women of all ages did not use lotion, while most Korean women of all ages used it everyday morning and evening. Most Mongolian women did not use essence, while most Korean women used it everyday morning and evening. Most Mongolian women used nourishing cream sometimes, while most Korean women used it everyday morning and evening. It could be assumed that most Mongolian women did not use eye cream, while Korean women in their 20s did not use it and those in 30s and 40s used it everyday. Most Mongolian women 20s to 40s did not use sunblock, while most Korean women in their 20s to 40s applied it always. Mongolian women in their 30s applied it only when they would go out, while most Korean women in their 30s applied it all the time.

Eleventh, most Mongolian women in their 30s to 40s did not drink coffee, most Korean women in their 30s and 40s drank 2 to 3 cups of coffee a day. Most Mongolian women of all ages ate meat, and most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ate meat, while most of those in their 40s ate the equal rate of vegetable and meat. Mongoli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ate instant food occasionally, and those in their 40s hardly ate it, whi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te it often, and those in their 30s and 40s ate it occasionally.

Twelfth, most of both Mongolian women and Korean women did not smoke, and those in their 20s drank once a month while those in their 30s and 40s did not drink.

Thirteenth, most Mongolian women and Korean women of all ages

slept for 6 to 8 hours, but those in their 20s went to bed and got up irregularly while those in their 30s and 40s went to bed and got up regularly.

Fourteenth, most Mongolian women in their 30s exercised occasionally, while most Korean women in their 30s exercised once or twice a week.

Fifteenth, it was found that the Mongolian women got more stress than the Korean women. The Mongolian women in their 30s and 40s managed their stress better than Korean women in their 30s and 40s did.

Sixteenth, compared with Mongolian women in their 20s, Korean women in their 20s worked less on average.

Seventeenth, Mongolian women hardly did outdoor activities, while Korean women did every weekend. Most Mongolian in their 20s and 30s used sunglasses to protect their skin from UV and most of those in their 40s used sunblock, while most Korean women of all ages used sunblock to protect their skin from UV.

Like above, currently, Mongolian women compared with Korean women have a lack of skin care knowledge and skin care right for their own skin. Due to external factors, there were not sufficient management methods that could delay skin aging, so subsequent studies will be necessary by expanding to residents in provinces instead of limiting the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to urban dwellers, so as to compose questionnaires with various research tools for various analyses and by comparing the measurement of Mongolian and Korean women's skin care attitude and facial skin condition to obtain significant results.

【Keyword】 Facial skin, skin condition, skin care, cosmetics, living habits